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99期(2026.07.17) WWW.MINGHUI.ORG

한글판 1063호 minghui.or.kr



▲ 유럽 각국과 이탈리아 각지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각계에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저지할 것을 호소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주요내용

【해 외】 “모두 파룬궁을 수련한다면 우리 학교는 더 좋아질 겁니다”

【수 련】 나와 명혜망의 인연

【수 련】 스프레이 표어는 큰 작용을 한다

【수 련】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지켜주신 수련의 길

〈목 차〉

■ 해외종합

대법 안에서 진정한 좋은 교사가 되다	3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8

■ 중국소식

“모두 파룬궁을 수련한다면 우리 학교는 더 좋아질 겁니다”	20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26

■ 수련교류

나와 명혜망의 인연	29
스프레이 표어는 큰 작용을 한다	36
시차 변환에 관하여	39
12389에 전화해 경찰의 악행 저지하기	43
발정념을 중시하면 발정념을 잘할 수 있다	46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지켜주신 수련의 길	50
나는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정정당당해야 한다	60
하루에 세 번 마음을 움직인 일	65
인권에 대한 인식	68
신사신법(信師信法)에 대한 약간의 체득	72
나의 근본 집착을 찾다	75

■ 시사평론

늑대가 양을 먹으려 할 때는 항상 핑계를 댈다.	84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수련하는 옌주잉(오른쪽 두 번째), 심신이 승화되어 화목해진 가족

대법 안에서 진정한 좋은 교사가 되다

[명혜망](선릉 기자) 대만 자이(嘉義)의 옌주잉(嚴珠熒) 교사는 올해 55세로, 아이들의 성장을 마음 다해 보살피며 학부모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교사다. 30여 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자이현과 자이시에서 두 차례 ‘특수 우수 교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진솔함과 선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묵묵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끊임없는 에너지의 원천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다.

온 가족이 함께 수련의 길에 들어서다

2007년, 옌주잉의 어린 아들이 중이염을 앓아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 치료를 위해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대만의 대형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다. 막막하고 무력하던 차에 언니와 한 동료가 약속이라도 한 듯 파룬궁을 언급하며 한번 알아보라고 권했다.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자 그녀는 ‘어쩌면 정말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파룬궁 ‘9일 학습반’에 참가하면서 운명을 바꾼 수련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옌주잉은 당시 아들을 위해 함께 참가했지만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파룬따파가 과거에 접했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신앙에 대해 늘 무언가를 추구하고, 생활의 행복과 신체의 건강을 바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의 법리는 무엇이 진정한 수련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풀리지 않던 많은 의문도 법을 듣는 과정에서 활짝 풀렸습니다.”

아들의 중이염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됐다. 아이는 어른들을 따라 연공하고 법공부를 하며 더는 항생제에 의존하지 않게 됐다. 이후 귀에 찻던 물이 사라지고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됐으며, 정신 상태와 집중력도 현저히 향상됐다.

이러한 직접적인 변화는 옌주잉에게 대법의 소중함과 힘을 깊이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의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두 자녀도 함께 수련에 들어서며 심신이 승화되는 수련의 길을 걷게 됐다.

이야기 한 편으로 학생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다

수련 후 옌주잉은 아주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다. “저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수련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이른바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정(情)이나 체면, 명예와 이익을 고려하기에 진정으로 진선인(眞·善·忍)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로서 겉으로는 학생을 위한다고 하며 높은 점수를 받길

바라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교사라고 칭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과 생각의 뿌리를 살피며, 열심히 가르치는 동시에 외부 평판에 대한 집착을 점차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도덕성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은 학생 문제를 대할 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갖게 했다.

10여 년 전, 그녀가 맡았던 반에서 한 학생이 중요한 USB를 분실한 일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예전에는 학생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교사가 가방과 서랍을 모두 열어 검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선량하다고 믿었고, 수련인의 방식으로 학생에게 사람의 도리를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엔주잉은 국어 시간과 학급 회의 시간을 이용해 에포크타임스에 실린 도덕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아이들이 올바른 인생관을 세우도록 이끌어왔다. 사건이 발생한 후 학급 회의 시간에도 그녀는 평소처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 그 이야기는 평생 이웃을 묵묵히 도우며 선행을 베풀었던 한 노인이 풍수해를 당했을 때 하늘의 보살핌을 받았던 내용이었다.

이야기가 끝난 후 그녀는 화제를 USB 사건으로 돌려 학생들에게 말했다. “착한 일을 하면 신께서 다 보시고, 나쁜 일을 해도 신께서 다 보십니다. 선생님은 우리 반에 도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일시적으로 잘못 가져갔거나 돌려놓는 것을 잊었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선한 마음으로 물건을 돌려준다면 선생님은 누구인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또 간곡하게 덧붙였다. “여러분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곧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일시적인 작은 실수

때문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잘못을 고치고 선량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신께서는 금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녀는 더는 묻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체육 수업이 끝난 후, 물건을 잃어버렸던 학생이 흥분해서 달려와 말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 USB가 필통 안에 돌아와 있어요.”

그 순간 연주잉은 내심 무척 감격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말했다.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도 개과천선할 기회를 얻었고,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게 됐으니까요.”

가르침 속에서 수련의 지혜를 체득하다

어느 해 학교에서 주최한 어머니날 음악회 리코더 대회가 열렸을 때였다. 음악 교사가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옌 선생님, 예전에 맡으신 반은 리코더를 아주 잘 붙어서 늘 1등이나 2등을 했지만, 올해 이 반은 좀 심각해요. 아무리 말해도 연습을 안 해서 성적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주잉은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을 탓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연주 곡의 함의와 노력해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먼저 선원 예술가들이 음악의 함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공유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학생들이 예술가 이면의 정신을 느끼게 했다.

이어 연주 곡의 배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오해로 인해 유감을 남긴 친구들이 그리움과 후회 속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마음의 울림을 느꼈고, 연주잉은 그 기세를 몰아 이끌어 주었다. “여러분은 지금

같은 반에서 이 곡을 함께 연주하는 인연이 있는데,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곡을 잘 연주하는 것은 단순히 대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이 인연과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이후 학생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다. 연습을 꺼리던 아이들이 성실히 임했고, 잘하는 학생은 실력이 부족한 친구를 자발적으로 도왔다. 학급 분위기는 더욱 단결되고 화기애애해졌다.

어머니날 감사 음악회 당일, 학생들의 공연은 놀라웠다. 연주에 대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전교에서 학부모가 가장 많이 참여한 학급이 됐다.

그녀는 깨달았다. “대법제자의 마음속에 법이 있고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와 선한 힘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돕고 자신도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얻은 가장 소중하고 신기한 체득입니다.”

맺음말

수년의 교육 과정 동안 연주잉은 학부모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많은 학부모가 “옌 선생님이 답임을 맡아주시니 정말 안심입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그녀는 이러한 신뢰가 평소 학부모와의 진솔한 소통, 그리고 학생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아이들이 문제를 겪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고비를 넘고 있을 때 저 역시 고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어디를 명확히 가르치지 못했

는지, 제 표현 방식 때문에 아이가 오해한 것은 아닌지 안으로 찾습니다. 이것은 모두 제가 진선인을 추구하는 이 길을 걸으며 진정한 스승이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저 자신을 잘 수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생에 교사가 되어 이렇게 많은 아이와 가정을 만난 인연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련한 지 거의 20년이 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함뿐이다. “대법에 들어온 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게 수련의 기회를 주셔서 진선인이야말로 생명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주신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설령 미래에 은퇴하여 더는 교사라는 신분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대법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연 있는 친구들이 모두 진선인 안에서 생명의 진정한 방향을 찾기를 희망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6월 27일과 28일 유럽 파룬궁수련자들이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중국공산당(중공)의 악행을 폭로하고 각계에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저지할 것을 호소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탈리아 각 정당 대표와 의원 등 여러 인사가 이탈리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학회에 서한을 보내 파룬궁을 성원했다. 그들은 중공의 박해를 받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깊은 동정을 표하며, 이탈리아 당국과 유럽연합 기구들이 더욱 단호히 입장을 밝히고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서 27년간 이어진 이 박해를 종식시키는 데 주력해 신앙과 사상의 자유가 존중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들은 수련자들과 함

게 중공의 박해를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상원의원이자 상원 유럽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 전 외교부 장관, 전 주미 대사인 줄리오 테르치(Giulio Terzi)는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정부가 부여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권리입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뜻으로 우리는 중국에서의 박해를 즉각 종식시키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며 저지른 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 함께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믿는 유럽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에 서야 하며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그리고 자유, 인류의 존엄성, 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보여준 훌륭한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상원의원 스테파니아 푸차렐리(Stefania Pucciarelli)는 “과룬궁 수련자들은 단호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와 신앙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여러분이 로마에 온 것은 국가 기관, 사회, 대중의 책임에 대한 시민의 호소입니다. 신앙, 양심 또는 평화적인 실천을 이유로 발생하는 어떠한 박해도 무시되거나 축소되거나 단순한 ‘내정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탈리아 의회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해 항상 고도의 관심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 시의회 의장 스베틀라나 첼리(Svetlana Celli)는 “행사 주최 측에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이 행사는 오늘날 특히 의미가 크며 대화, 신앙의 자유, 인류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보여줍니다”라고 전했다. “로마 시의회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도의적 지지를 재확인합니다.” “종교의 자유 보호와 어떠한 형태의 억압에 대한 거부는 진정으로 공정하고 관용적인 사회에 필수불가

결한 기동입니다.”

이탈리아 전 국회의원이자 유럽 고문방지위원회 이탈리아 대표인 엘리자베타 잠파루티(Elisabetta Zamparutti)는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양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한 국가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 가장 깊은 신념, 신앙 또는 내면의 추구마저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체주의이며 이는 국제사회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여러분의 행동은 단지 파룬궁과 중국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진실은 박해받을 수 있어도 지워질 수 없으며 자유는 억압받을 수 있어도 패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저는 여러분께 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사회학자이자 비터윈터(Bitter Winter) 편집장인 마시모 인트로비네(Massimo Introvigne)는 “파룬궁이 중국에서 박해받은 지 27주년이 되는 이때, 모든 파룬궁수련자에게 가장 진심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냅니다. 압박과 위협,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가적 탄압에 직면해서도 여러분은 줄곧 신앙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해 왔으며, 이러한 굳건함은 비범한 시민의 용기를 보여줬습니다”라고 밝혔다. “저는 특히 직접 구금이나 차별을 겪었거나 가족과 생이별한 난민들이 걱정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로마에 온 것은 이 박해가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는 점을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7월 8일, 중국 정권의 본질과 체계적인 인권 박해에 초점을 맞춘 고위급 주제 세미나인 ‘중국 지도부의 이해’가 영국 의회 포트컬리스 하우스 월슨 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세미나를 주재한 이언 던

컨 스미스 경(Sir Iain Duncan Smith)은 개회사에서 직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공은 중국 국민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유세계 전체에도 위협이 된다. 그는 중공이 국제조약에서 한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국가안전법》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역외 효력을 갖는 이른바 '민족단결' 관련 새로운 규정을 발표해 해외로까지 탄압의 손길을 계속 뻗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경은 서방 세계가 중공의 전혀 다른 가치관과 행동 규범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의에는 데이비드 매터스 박사, 얀 예키엘렉, 이선 구트만 등 국제 조사 전문가들이 초청돼 기초연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영국 정부 외교 관료, 의학회 권위자, 국가 규제 기관, 주류 언론 및 여러 인권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 각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참석 대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중국팀, 영국 인체조직관리국(HTA), 영국 의학회(BMA),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 영국방송공사(BBC) 등 공식 및 권위 기관 대표, 그리고 홍콩 워치, 위구르 집단학살 중단, 기독교 의사회 등 다수의 유명 비정부기구(NGO)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스트 런던에서 온 교회 목사 데이비드 크리스프는 영국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중공이 약 1억 명에 달하는 수련 단체를 27년 동안이나 박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종교적 신앙을 가졌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자유를 가져야 하며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존엄성을 가져야 합니다.”

당일 런던은 띄약별이 내리쬘었고, 영국 의회 거리 맞은편 의회 광장의 돌바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찍부터 그곳에 진상 현수막을 펼치고 5장 공법을 시연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했고, 중공이 27년간 지속해 온 박해 범죄를 폭로하는 동시에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를 성원했다. 방금 수학과 철학 학위를 마친 대학 졸업생 도미닉(Dominic)도 그중 한 명이였다. 그는 부스를 지나가다 장기적출 반대 전단지를 받았다. 그는 자리를 뜬 후 전단지를 주의 깊게 읽었고, 인터넷에 접속해 그 내용과 중공의 파룬궁 박해 사실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진상을 알게 된 후 그는 즉시 행사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자에게 말했다. “만약 제가 이 일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7월 11일 영국 체셔주 위버햄(Weaverham) 마을에서 열리는 연례 장미 축제(Rose Fete)의 서막을 열었다. 영국의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요고(腰鼓)팀도 초청을 받아 이 축하 행사에 참가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파룬궁수련자는 부스에서 공법을 시연했고 많은 사람이 다가와 함께 공법을 배웠다. 마을 조직위원회 구성원이 특별히 수련자 부스를 찾아와 파룬궁 팀이 행사에 참가해 준 것에 감사해했다.

2026년 6월, 영국 런던 해크니(Hackney) 구에서 건강과 복지를 주제로 한 커뮤니티 포럼(Neighbourhood Forum) 행사가 두 차례 연속 개최됐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초청을 받아 주민들에게 파룬따파 공법을 소개했으며 주민, 커뮤니티 직원 및 전문가들의 환영을 받았다. 6월 30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런던 필즈(London Fields) 커뮤니티에서 개최된 건강 포럼 행사에 다시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번에 주최 측은 빠빠한 일정 속에서도 주민들이 공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45분을 배정했다. 주디(Judy)는 연공에 참여한 후 두 손을 아랫배 앞에 놓고 시늉을 하며 기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흥분해서 말했다. “에너지가 느껴져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두 차례의 커뮤니티 행사가 끝난 후 커뮤니티 직원 더 많은 주민이 공법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8월 커뮤니티 ‘서머 펀 데이(Summer Fun Day)’ 행사에 파룬궁수련자들을 다시 초청했다.

6월 28일,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 범죄를 폭로한 다큐멘터리 ‘국유장기’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레클링하우젠시 루트비히 국왕 홀에서 상영됐다. 관객들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박해에 경악했으며 파룬궁수련자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번 행사는 주최자인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대표 안드레아스 베버와 독일 말리인 협회 회장 분야 드라보가 공동으로 개막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베버가 사회를 맡았고, 독일 연방 하원 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녹색당 인권정책 대변인인 막스 룩스와 파룬궁수련자 정즈홍(鄭志紅)이 무대에 올라 토론에 참여했으며 영화 작가 쑹(宋) 씨와 화상 연결을 했다. 룩스 의원은 먼저 무더위에도 영화를 관람하러 온 관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많은 사람이 인권을 위해 확고히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정말 희망찬 일입니다. 녹색당의 인권정책 대변인으로서 저는 장기적출 및 장기밀매 문제야말로 독일 연방 하원의 인권정책 분야와 유럽 평의회 의회 인권 분야에서 우리가 고도로 주목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녹색당 국회의원인 그는 독일이 “중공 같은 국가에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라며 “오늘 밤 제가 여기서 얻은 깨달음은 이 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하

며 이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레클링하우젠구 구청장인 보도 클림펠(기민당)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기본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문장은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개인의 자유, 존엄성,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의심되거나 증거가 확인됐을 때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지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레클링하우젠 부시장 클라우디아 슈베페(사민당)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큐멘터리 ‘국유장기’는 내용이 깊고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중공의 조직적인 장기 매매 운영 방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상상할 수 없는 인류의 고통을 숨 막힐 듯 명확하게 폭로합니다.”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독일 란츠베르크시 극장의 역사 기념홀에서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국제미술전’이 전시됐다. 독일 란츠베르크(Landsberg) 미술협회 회장이자 경험이 풍부한 전시 기획자인 루돌프 빌레(Rudolf Bille)는 작품 ‘십자로’에 각별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절묘한 구도와 투시 기법 외에도 그를 더욱 감동시킨 것은 작품 이면의 깊은 함의였다. 그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선택에 직면하는데, 진리와 정의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깨달았다. 란

츠베르크 일보는 ‘진선인 미술전’과 관련된 상세한 보도를 실었는데, 제목은 ‘박해받는 자들의 시각적 목소리’였다. 기사 서문에서는 “어떤 그림은 아름다움과 희망을 보여주고, 어떤 그림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묘사했습니다”라고 했다. 해당 신문 기자는 기사에서 작품의 예술적 수준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받는 진실한 처지도 언급했다.

7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공 외교부장 왕이(王毅)가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기간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은 각각 핀란드 국회의사당, 외교부 및 노르웨이 총리 영빈관 인근에서 평화 청원을 열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27년간 지속해 온 박해를 중지하고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생체 장기적출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행사는 양국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수많은 현지 시민과 각국 관광객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었다. 핀란드 최대 공공 미디어 기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 매체인 핀란드 국영 방송(YLE)은 현장 사진을 게재하고 사진 설명에 “파룬궁수련자들이 핀란드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공 외교부장의 핀란드 방문을 반대하는 항의 행사를 열었다.”라고 적었다. 핀란드 언론 매체 일탈레흐티(iltalehti)도 분석 기사를 발표해 중공 정권이 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중공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노르웨이 국영 방송(NRK)과 노르웨이 TV2(TV2)는 모두 관련 보도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의 평화 청원 행사를 언급하며 현장 화면과 사진을 방송했다.

7월 4일, 평소처럼 파룬궁수련자들은 프랑스 파리 중심가 샤토레 구역에 와서 시민들과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진상을 알리며 중공의 박해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았다. 여름휴가가 시작돼 날씨가 더웠음에도 파룬궁수련자들의 행사는 관광객과 현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파룬궁수련자들이 연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현수막, 패널, 전단지 및 파룬궁수련자들의 소개를 통해 진상을 이해했으며,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를 지지하는 서명을 하고 소감을 밝히며 중공의 박해 만행을 규탄했다. 영화감독인 카바치는 파룬궁 행사 장소를 지나가다가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와 장기적출 악행을 알게 된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말했다. “너무 끔찍합니다. 반드시 이런 악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는 또 말했다. “진선인은 매우 아름답고 완전히 옳습니다. 진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선량한 것, 즉 우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도 있으니 화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2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Amsterdam) 외부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며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진상을 폭로했다. 진상 전시판은 많은 직장인, 비즈니스맨, 그리고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한 네덜란드 고등학교 교사는 박해 반대 서명을 하고 수련자들에게 ‘사람들을 일깨워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 중국인은 중공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했고, 벨기에에서 온 한 중국인 대학원생은 파룬따파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7월 4일부터 5일까지 슬로바키아 니트라에서 ‘친애하는 니트라-프리비나 및 성 시릴과 성 메토디우스 축제(Dear Nitra - Pribina and Saints Cyril and Methodius Festivities)’가 열려 국내외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모였다. 축제가 열린 슈테파니크 거리(Štefánik Street)에 파룬따파 수련자들도 진상 정보 부스를 마련했다. 이틀간의 행사 기간 그들은 파룬궁 5장 공법을 시연하고 방문

객들에게 이 공법이 심신 건강에 미치는 이점을 소개했으며, 1999년 이후 중공이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가한 박해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관광객이 발걸음을 멈추고 전시 패널을 보거나 질문을 했으며, 박해 종단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간호사 에리카(Erika)와 학생 시모나(Simona)도 청원서에 서명했다. 에리카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금지하고 해치는 것은 비인도적입니다”라고 말했다. 가비(Gabi)는 누구나 박해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살아갈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시 거리에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에 모여 미국 건국 250주년 및 알링턴시 건립 150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약 150개 단체가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댈러스 지역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꽃차와 다채로운 현수막 행렬은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7개의 본부석 사회자는 파룬따파를 여러 차례 소개했으며 관중들은 연신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사진을 찍어 파룬궁 행렬은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됐다. 사회자는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파룬따파는 중국 전통에서 기원한 ‘진선인’을 원칙으로 하는 수련법으로,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전파됐습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매일 ‘진선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무료로 공법교습을 제공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정말 멋집니다! 환영합니다!”

7월 3일, 미국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버몬트주 주도 몬트펠리어에서 성대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초청을 받고 참가해 현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파룬궁 진용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흔들며 박수를 쳤고,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관중 마크는 “복장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밝은 노란색이 매우 예쁘네요. 북소리 리듬도 무척 아름답

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딸 셰어레인은 공법 시연 진용을 특히 좋아하며 “퍼레이드에서 연공 동작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매우 참신하다며 “정말 멋집니다. 길가의 관중들이 동참해서 함께 연공하는 것을 봤어요. 그 느낌이 아주 훌륭했습니다”라고 했다.

7월 11일,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 27주년을 맞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은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 광장에서 연공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으며, 사회 각계가 함께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27년에 달하는 잔혹한 박해를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교사 줄리 줄루아가는 진상을 알게 된 후,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박해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표명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실천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신앙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지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줄리는 말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단지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공이 단지 사람들이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심지어 박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극히 황당한 일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이 박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이러한 잔혹한 만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7월 7일, 싱가포르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홍림 공원(Hong Lim Park)에서 기념행사를 열어 각계에 중공의 지속적인 박해와 초국가적 탄압을 제지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에서 박해로 사망한 수련자들을 추모했다. 평화로운 공법 시연, 박해를 폭로하는 미술전 작품, 진상 게시판과 현수막, 그리고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촛불

들……. 이 모든 장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생각에 잠기게 하며 사실 진상을 묻게 했다.

7월 5일,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파룬궁수련자들은 쿨라이 푸트라 타운 포레스트 파크에서 평화로운 박해 반대 27주년 행사를 열고 사회가 파룬궁 박해에 관심을 갖고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수련자들은 각각 중국어, 말레이어, 영어 3개 국어로 집회 연설문을 낭독했다. 연설에서는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중국 수련자들이 박해받는 상황, 그리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규탄을 소개했다. 저녁 7시경 어둠이 깔리자, 수련자들은 손에 연꽃 등을 들고 가부좌한 채 중공의 박해로 생명을 잃은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을 애도했다.

대만 전역에서 온 파룬궁 보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7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린 법공부 교류 행사에 참가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수련자들은 법공부, 진상 알리기, 심성 제고 및 조화로운 협력 등을 주제로 수련 체험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함께 제고할 것인지 교류했다. 7월 5일 오후, 14명의 보도원이 차례로 수련 심득을 공유했다. 내용은 책임감 감당, 단체 수련 환경 개선, 안일함 돌파, 각종 집착 내려놓기, 그리고 안으로 찾고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심성을 제고하는 것 등을 포함했다. 생생한 수련 경험 하나하나가 현장에 있던 수련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현장 교류 분위기는 뜨거웠다.

“모두 파룬궁을 수련한다면 우리 학교는 더 좋아질 겁니다”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연결(蓮潔)

[명혜망] 저는 교사입니다. 1996년 가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파룬궁’이라는 책으로 배웠는데, 사부님께서 설법하신 법리가 제 눈앞의 안개를 걷어줬습니다. 이것이 수련을 가르치는 책임을 알게 됐고, 마음속 깊이 일찍이 느껴본 적 없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빨리 자신을 찾고, 빨리 사과하다

대법을 수련한 후, 저는 직장에서 ‘진선인(眞·善·忍)’의 법리에 따라 행동하려 노력했고,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엄격함에서 온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부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안으로 찾았습니다. 학생이 화를 낼 때면 저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학생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는 않았나? 말투가 나쁘지는 않았나? 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제 잘못임을 발견하면 즉시 당사자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에게 사과했습니다. 갓 입학한 초등학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학생들은 모두 저를 잘 따랐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부모님들이 저와 자녀 교육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하고, 선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반에서 저는 자주 학생들에게 진선인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어린이 이야기, 갈등이 생겼을 때 안으로 찾은 어린이의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아이들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먼저 상대방에게 달려가 잘못을 인정하는 학생이 생겼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울음을 그치고 미소를 지으며 화를 풀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쪽이 억울해하며 두 아이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길 때, 어김없이 곁에서 한 학생이 이렇게 일깨워줬습니다. “빨리 네 잘못을 찾아, 빨리 상대방한테 사과해.” 그러면 그 학생은 곧장 자기 잘못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했습니다. 때로는 양쪽 모두 자신의 잘못을 찾지 못하고 저한테 와서 고자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자기 잘못을 말하는지 보자. 선생님은 그런 아이를 제일 좋아한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앞다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먼저 때리면 안 됐어요.” “선생님, 저도 잘못했어요. 맞받아치면 안 됐는데.” 그렇게 두 학생은 금세 손을 잡고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무실 동료들은 부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법이 정말 대단해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찾고, 갈등이 금방 해결되고, 뒤탈도 없으니 말이에요.”

제가 몸소 모범을 보인 덕분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모두 안으로 찾는 법을 배웠고,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좋은 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니 학업 성적도 우수해졌고,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가장 심하게 벌이던 시절, 새 학기마다 반을 편성할 때면 많은 학부모가 미리 교장에게 제가 어느 반을 맡는지 물어보고는 자녀를 제 반에 넣으려 했습니다. 교장은 학생을 붙잡아두기 위해 늘 저에게 신입생 반을 맡겼습니다. 파룬궁 진상을 알고 있던 교장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또 수고를 끼치게 됐네요. 신입생이 관리하기 어렵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도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부모가 선생님을 지명하니 어쩔 수가 없어요.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맡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됐죠. 저는 연공으로 몸이 건강하니 조금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들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그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 일을 도와줬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어리다 보니 난로에 불을 피울 줄 몰라서, 제가 일찍 나와 아이들을 위해 불을 지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어떤 학부모는 먼저 나서서 교실 난로에 불을 피워주기도 했고, 부서진 의자를 자발적으로 고쳐주거나, 학생들의 청소를 돕기 위해 자원해서 학교에 나오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이 광경을 보고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반 학부모님들은 정말 좋으시네요. 일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다니.”

“이 아홉 글자가 정말 효과가 있네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모두 진상을 알게 됐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했으며,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 저마다 정도는 달랐지만 모두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마다 이 아홉 글자를 외우면 정말로 나았습니다.

한번은 학생 샤오옌(小燕)의 온몸에 습진이 가득 났는데, 너무 가려워 긁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샤오옌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봐. ‘괜찮아, 나는 안 가렵다.’ 참으면 나을 거야.” 제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반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도 외워야 해!” 다른 몇몇 학생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맞아,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외워!” 샤오옌은 얼른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가렵다!” 불과 몇 분 만에 빼곡하게 돋아났던 습진이 사라졌습니다.

샤오옌의 어머니는 퇴근 후 서둘러 달려와 아이에게 약을 발라주고 먹이게 해달라며, 아이가 밤새 가려워 잠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이가 이미 나았어요.” 샤오옌 어머니가 샤오옌의 옷을 들어올려 꼼꼼히 살펴보니 습진이 흔적도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어떻게 나은 거죠? 의사는 7~8일은 걸린다고 했는데.” 샤오옌과 몇몇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외워서 나은 거예요.” 샤오옌 어머니가 “정말이에요?”라고 묻자 한 남자아이가 다가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감기에 걸려서 머리가 아팠는데, 세 번 외웠더니 나았어요.” 또 다른 여자아이가 달려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은 배가 아팠는데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아홉 번 외웠더니 배가 안 아팠어요!”

저는 샤오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파룬궁은 이렇게 신기합니다.” 샤오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홉 글자가 정말 효과가 있네요! 이제 기억해뒀다가 집에서도 외워야겠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알려줘서 고마워요.” 샤오옌은 피부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그 뒤로 학업 성적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선생님들이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다

사악한 박해로 인해 저는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교사들 사이에 파벌이 심하고 관계가 매우 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동료가 저에게 귀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고 원망이 깊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어 아무도 함부로 웃고 떠들지 못했고, 몹시 답답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진선인대로 행동하며 모든 선생님을 진심으로 선하게 대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학교에 나와 사무실 난로에 불을 피우고, 청소를 하고, 모든 선생님의 책상을 한 번씩 닦은 다음 각자의 자리에 따뜻한 물을 따라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출근하고 나서 물을 마시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이 또 수고하셨네요, 고마워요!” 어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이 온 뒤로 우리 사무실은 당번 순서표가 필요 없어졌어요. 파룬궁 수련하는 분답네요.” 또 다른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선생님한테 배워야겠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저도 모르게 모든 선생님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차츰 일찍 사무실에 나오는 선생님이 많아지고,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선생님도 늘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깨끗하고 단정해졌고, 제 컵에도 늘 따뜻한 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 선생님에게 진상을 전하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비록 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리 선생님과 양 선생님(수련생)의 행동을 보면서 이것이 좋은 기공임을 알았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중공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츰 저는 진상 소책자를 선생님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드렸는데, 나중에는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나눠줬고, 선생님들도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스스로 새 소책자가 있냐고 물어보며 달라는 선생님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은 진상을 알게 됐고 삼퇴를 했습니다. 몇몇 선생님은 ‘전법륜(轉法輪)’을 읽고 싶다고 해서 한 분씩 한 권씩 드렸고, 동료 세 명은 저에게 연공 동작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상을 알고 ‘전법륜’을 읽으면서 모두 변화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사소한 일에 덜 따지게 됐으며, 서로 간의 의심이 줄고 배려와 신뢰가 늘었습니다. 원망과 시기, 갈등, 파벌 현상이 서서히 사라졌고, 사무실 전체에 웃음꽃이 피어나며 침울하고 답답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고 저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번은 스승의 날 회식 자리에서 서로 덕담을 나눌 때, 나이 지긋한 선생님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화목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은 다 리 선생님 덕분이에요! 건배합시다!” 다른 선생님들도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리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단결하고, 즐겁고 활기차졌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선인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저도 선생님들의 지지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설이면 동료들에게 한 명씩 진상 탁상달력을 드렸는데, 모두 기꺼이 받아들고 당당하게 집에 가져갔습니다.

“모두 파룬궁을 수련한다면 우리 학교는 더 좋아질 겁니다”

어느 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우수교사 선발에서 제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교장이 심사위원 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분이라 위에 보고할 수가 없어요.” 심사에 참여한 선생님 한 분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파룬궁을 수련한다면 우리 학교는 더 좋아질 것이고, 교장 선생님 일도 훨씬 편해질 겁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모두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연히 보고해야 해요.” 저는 결국 우수교사로 선발되었습니다.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용감하게 나서준 이 선생님은 그 후 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기적으로 살아났는데, 의사들도 모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악한 대법 박해가 가장 극심하던 시절, 저는 수차례 지역 우수교사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파룬따파의 법리가 저에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지,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를 가르쳐줬기 때문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2024년 7월, 산시성 한중시 멘(勉)현에 홀로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자 천칭(陳靑)이 갑자기 실종됐다. 2개월 후,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멘현 경찰에게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멘현公安, 검찰, 법원은 지속적으로 그를 모함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천칭은 이미 부당하게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일찍이 2025년 말 산시성 웨이난 감옥에 비밀리에 감금됐다. 그가 모함받은 구체적인 과정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그는 여러 차례 중국공산당(중공) 경찰에게

납치, 부당한 구류, 부당한 강제노동 및 세뇌반 박해를 받았다.

랴오닝성 선양시의 89세 파룬궁 수련자 량쭈즈(梁淑智)는 2026년 6월 15일 경찰에 의해 랴오닝성 여자 감옥으로 이송됐으나, 혈압이 190까지 올라 수감되지 못했다. 7월 6일, 량쭈즈 노인은 다시 선양 제1구치소 경찰에 의해 강제로 감옥에 수감됐다. 현재 량쭈즈 노인은 제12 감구(監區)에 수감되어 있다. 량쭈즈 노인은 선양시 허핑구 썬야 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권위 있는 병원에서 비인두암 진단을 받았다. 본인 역시 의료 종사자였지만 병을 되돌릴 방법이 없어 결국 조기 퇴직했다. 1996년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질병이 빠르게 사라졌고, 건강을 회복했다. 2021년 6월 8일, 허핑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와 마루완 파출소 경찰은 그녀의 집에 들이닥쳐 그녀를 납치하고, 집에 있던 컴퓨터와 파룬따파 서적 등 개인 물품을 압수했다. 그녀는 당일 ‘취保候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귀가했다. 그러나 이후 허핑구 국보대대는 그녀를 선양시 랴오중구 검찰에 모함했고, 2023년 3월 27일, 랴오중구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2만 위안을 강제로 부과했다.

헤이룽장성 다칭시 자오저우현의 74세 파룬궁수련자 쑹루이샹(宋瑞香)은 2026년 5월 7일 다칭시 제2 구치소에서 헤이룽장성 여자 감옥 제8 감구(하얼빈시 쉬에푸루 소재)로 비밀리에 이송돼 계속 감금 박해를 받았다. 7월 3일, 감구 직원은 갑자기 그녀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쑹루이샹이 하얼빈 의과대학 제2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아 즉시 ‘혈관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에게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묻고 서명을 요구했으나 가족은 이를 거절했다. 가족은 이미 감구에 ‘병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25년 9월 8일 오전, 쑹루이상은 자오위안현 보허타이향 시장에서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던 중 자오위안현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다칭 제2 구치소에 감금됐다. 사건의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절차가 위법한 상황에서 법관 장신러(張欣樂)는 여전히 쑹루이상에게 징역 2년 6개월형, 벌금 1만 6천 위안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2026년 7월 6일, 산둥성 린칭시 파룬궁수련자 추이위링(崔玉玲)이 린칭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의 원인은 10년 전 그녀가 이른바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풀려나 귀가한 이후, 중공 인원들이 무려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른바 증거를 날조해 그녀를 다시 모함하려 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변호사는 명확히 지적했다. “‘취보후심’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것이 공소인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이 시작될 때 추이위링은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법정에 끌려 나왔다. 이미 반년 동안 감금돼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수척해진 상태였다. 추이위링은 올해 59세이며 2015년 10월 30일 오후, 칭넨 파출소 소장 리젠쥘(李建軍) 등은 담을 넘어 침입해 추이위링을 납치했다. 이후 랴오청 구치소로 이감됐다. 2016년 3월, 추이위링은 이른바 ‘취보후심’으로 귀가했다. 이후 10년 동안, 린칭시 공안국 국보대대, 칭넨 파출소, 심지어 형사경찰대 경찰들까지 지속적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2026년 1월 19일 밤, 추이위링은 린칭시 국보대대 경찰에게 다시 납치돼 랴오청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나와 명혜망의 인연

— 명혜망 설립 27주년에 즈음해 쓰다 —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비록 일찍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접하고 스스로 공법을 배우고 연공했지만 오성(悟性)이 부족하고 과학과 앞날에 대한 집착이 있어 오랫동안 진정으로 수련에 들어오지 못했다. 어머니에게서 얻은 대법서적과 사부님 경문을 읽고 간헐적으로 연공하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앓던 감기와 발열에서 빠르게 벗어났고 가슴 두근거림도 없어졌으며, 매년 봄이면 1~2달씩 계속되던 기침도 사라졌다. 하지만 수련의 함의에 대해서는 단지 질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이해했다.

1997년 3월, 나는 뉴욕 법회에 참가했다. 이틀 연속 사부님의 9시간 설법을 들으면서 그동안 가졌던 ‘과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길이다’라는 관념을 단번에 깨뜨렸고 과학의 협소함과 한계를 깨달았다. 학업과 수련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야 할지 단숨에 알게 된 것 같았다. 나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수련의 일은 우주 중에서 가장 큰일이다”(미국법회 설법-뉴욕법회 설법)라는 법리를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그 후 2년 동안 나는 여전히 혼자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하며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교류할 환경이 없어 종종 사람의 타성에 이끌리곤 했다.

1999년 ‘4·25’ 때까지 세상일에 무관심하던 내게 갑자기 많은

동창이 세상을 놀라게 한 1만 명의 청원 소식을 알려왔다. 그들은 모두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인터넷에서 관련 보도를 찾았다. 그러다 ‘북미의 파룬따파, 명혜망’[1]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일의 전말을 알게 됐고 중국 수련생들의 수련에 대한 확고함과 대법을 수호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하여 명혜망을 읽는 것은 매일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과가 됐다.

나는 수련의 엄숙함과 가혹한 시련을 점차 깨달았다. 형언할 수 없는 책임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났다. 중국에 있는 내 가족들도 억울하게 납치돼 구금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사실을 글로 적어 명혜망에 투고했다. 가족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는 겪었던 일들을 글로 써서 실명으로 명혜망에 투고하게 했다. 당시에는 ‘박해 폭로’라는 일에 대해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그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게 하고 싶었다.

명혜망을 통해 많은 진상을 알게 된 그때, 많은 동창이 나를 보면 파룬궁에 대한 온갖 질문을 쏟아냈고, 명혜망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그들의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러웠다.

당시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생각이 맴돌았다. ‘내가 명혜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01년, 나는 다른 도시로 가서 박사후 과정을 밟게 됐다. 이메일 주소가 바뀌어 이전에 살던 도시의 한 수련생에게 메일로 알렸다. 뜻밖에도 수련생은 즉시 답장을 보냈는데 첨부 파일에는 명혜망에서 가져온, 박해받은 한 수련생에 관한 몇 문장 안 되는 짧은

보도가 있었다. 나는 번역하라는 뜻인가 싶어 회신으로 물었고,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을 받은 이후 번역을 시작했다.

비록 몇 문장 안 됐지만 일상적인 영어에서는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서 번역하는 데 2~3시간이나 걸렸다. 글자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가며 마침내 번역해 냈다.

얼마 후 그 수련생은 정기적으로 내게 글을 보내기 시작했고 글은 점점 길어졌으며 빈도도 일주일에 한 편에서 하루에 한 편, 심지어 하루에 여러 편으로 잦아졌다. 어쨌든 나는 항상 하루 안에 번역문을 돌려보냈다. 당시 내 생각은 아주 단순했다. 바로 원고를 신속하게 번역해 내는 것이었는데, 국제사회에 중국에서 발생하는 박해를 폭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악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하루라도 일찍 폭로하는 것이 하루라도 일찍 악을 종식시키는 데 유리하며, 동시에 박해받는 중국 대법제자를 구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가 번역한 글은 서양인 수련생에게 보내 편집 과정을 거쳤고, 그들이 수정한 글을 다시 번역 수련생들에게 보내주었다. 서양인 수련생의 수정을 보면서 나는 서양인들의 영어 용법과 표현 방식을 많이 배웠고 내 번역 수준도 점차 향상됐다. 여기서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 차이도 느꼈는데, 나중이야 알게 됐지만 어떤 차이는 자신이 수년간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에 오염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후 나는 특정 항목의 기사를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팀으로 배치됐다. 보도의 시의성 때문에 당일 아침에 발표된 글은 아침에 번역을 마쳐 같은 날 영문 명혜망에 올려야 했다. 그때는 종종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전에 가장 급한 글을 번역하고, 저녁에 퇴근한 이

후 덜 급한 글을 처리하곤 했다. 가장 많이 번역했던 날은 대법의 날 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해외 보도도 많고 축하 메시지와 카드도 많아서 그날 나는 숨 돌릴 틈 없이 무려 11편, 총 40페이지 분량의 글을 번역했다. 당시 영어가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나로서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협조인 수련생은 내게 영문 번역을 위한 중문 기사 편집을 맡겼다. 당시 중문 기사의 많은 표현이 서양인의 습관에 맞지 않아서 중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서양인들이 그 번역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짧은 박해 보도에 무려 17번이나 ‘악경(惡警)’이라는 단어를 썼고 ‘불법[非法]’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사용했으며 감정적인 형용사도 아주 많았다. 또한 일부 수련 교류 글은 너무 길고 단락과 층이 명확하지 않아 편집하고 다듬은 뒤 번역해야 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종종 생각했다. ‘우리가 재편집한 글이 중문 웹사이트에서 원문을 대신할 수 있다면, 중국어를 쓰는 일반인들이 읽기에 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당시에는 이런 생각만 했을 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이 있었는지 이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응답을 받았다. 책임자의 전화를 받고 중문 명혜망 편집 작업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원래는 중문 편집 작업이 모국어니까 번역보다 훨씬 쉬울 줄 알았다. 처음 원본 투고를 받았을 때 나는 꽤 충격을 받았다. 아마도 많은 중국 수련생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을 테고, 인터넷 통제와 박해의 압력 속에서 그들은 알게 된 박해 정보를 최선을 다해 표현했을 것이다. 하지만 종종 한 단락 안에서도 문법이 맞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 주어, 술어, 목적어가 빠지거나 오타가 많아 나

를 당혹스럽게 했다.

또한 법률과 관련된 용어나 일부 내용도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이라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몰랐다. 당시 글 한 편을 편집할 때는 먼저 문구부터 다듬은 다음 이미 발표된 유사한 글을 찾아보며 민감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확인했다. 예를 들어 박해 보도에서는 사악의 박해 수단과 속임수를 폭로하면서도 무의식중에 사악의 세뇌를 선전해서는 안 됐다. 수련 교류 글의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 예컨대 이 문장이 법리에 부합하는가? 글이 자신을 실증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문화의 흔적은 없는가? 이러한 표현이 현지 수련생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등등이었다. 이렇게 매일 4~5시간씩 내게 할당된 파일 하나를 편집했다.

나는 편집 작업을 잘 해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깊이 느꼈다. 이는 단지 매일 일반인의 업무를 마친 뒤 몇 시간 더 일해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었다. 법공부를 잘하고 좋은 수련 상태를 유지해야만 사악한 요소가 사람의 집착과 관념을 이용해 일으키는 교란을 줄일 수 있고, 편집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혜안을 가져 불순한 것을 걸러내어 글을 최대한 순수하게 만들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

몇 달간의 편집 작업을 거친 이후 나는 특정 중요한 단계의 업무를 배정받았다. 이 부분의 업무는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요구되는 기술도 많으며 책임도 무거워서, 만약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자신을 일깨웠다.

나는 이 단계에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한다고 자주 생각했다. 그

러나 사람 마음이 너무 많고 관념이 너무 많으면 요구에 도달할 수 없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글을 보면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매번 발표된 글에 심각한 오류가 남았을 때, 예를 들어 중대한 오타, 모호한 제목, 핵심 관점을 잘못 짚은 경우, 또는 사진에 심각한 오류가 나타났을 때 이는 모두 큰 사고였다. 그때 내 상태를 반성해보면 분명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특정 세부 사항을 놓쳐 문제가 발생했다. 만약 마음을 쓰지 않고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사고 관성에 빠지기 쉽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소위 ‘수련생 용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글에 사용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일반인 독자를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아주 무거웠다. 수련의 부족, 기술의 결여, 법공부 부족, 너무 많은 사람 마음이 이런 문제들을 초래한 것이다.

이 부서로 옮겨 일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해 종종 피로를 느끼곤 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폐쇄적인 환경, 그리고 수련의 부족은 수련의 의지마저 갉아먹어 때때로 침체에 빠지게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처음에 명혜망 작업에 참여했던 소망을 떠올렸다. 아마도 그것은 생명의 아주 먼 옛날에 맺은 약속이었을 것이다. 내 직장과 가정환경에는 큰 갈등이나 충돌이 없기에 어쩌면 매일 꾸준히 명혜망 작업을 잘 해내는 것이 내가 직면한 수련 과제일지도 모른다. 피로하고 침체되는 이유는 소위 안일하고 좋은 삶에 대한 추구를 아직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했고, 수련 기회의 소중함과 수련의 엄숙함을 진정으로 체득하지 못했으며, 나 자신이 짊어진 책임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 길을 가봐야 말의 힘을 알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 마음을 안다고 했다. 수련은 더더욱 장기적인 시련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대법에 의지하고 사부님의 보살핌과 도움 덕분이다. 물론 수련생들 간의 상호 지지와 문제점을 보았을 때 선의로 지적해준 것도 있었다. 우리는 만날 기회가 드물고 업무 교류와 수련 교류도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내게는 깊은 도움이 됐다.

명혜망이 걸어온 27년 동안, 나 역시 처음 명혜망에서 진상을 알고 자양분을 얻던 것에서부터 명혜망 작업자 중 한 명이 되기까지, 나는 이 수련 기회에 매우 감사하며 함께 협력하고 공동으로 향상할 수 있는 수련 환경을 몹시 소중히 여긴다. 비록 우리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명혜망을 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잘 협조하고 맞춘다면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며 원용불파(圓容不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법공부를 잘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순수하게 정화해 사명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1: ‘북미의 파룬따파, 명혜망’은 명혜망의 초기 이름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해가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반(反)박해와 중국 수련생들의 수련을 지지할 필요성 때문에 원고 출처와 내용이 중국에 집중됐다. 게다가 1999년 ‘7·20’ 이후 중국 각지의 지역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수련생들이 잇달아 파룬궁을 위해 청원하러 나섰다가 박해를 받으면서 각지 웹사이트가 사라졌다. 이에 명혜망은 ‘북미의’라는 글자를 빼고 중국과 해외를 연결하며 대법제자 단체(특히 중국 대법제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국제 웹사이트, 즉 ‘파룬따파 명혜망’이 됐다.

스프레이 표어는 큰 작용을 한다

글/ 중국 허베이 대법제자 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나는 북방 농촌에서 온 대법제자다.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하고 중생을 구하는 길에서 감히 나태할 수 없어 사람을 구하는 일마다 진지하게 임했고, 내가 참여한 모든 항목(項目)마다 정성껏 고민해 완벽을 기하려 노력했다. 스티커 문제에 대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한다.

작년에 명혜망에서 갓 ‘공산당은 사교다(共產黨是邪教)’ 등 스티커를 내놓았을 때, 나는 명혜망에서 요구한 것이니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명혜망의 태도를 보아야 한다.”(명혜편집부 문장: ‘7월 22일 이후 두 번째 진정한 신경문이 곧 발표된다’)

예전에 농촌 길거리 벽면에서 ‘과학을 숭상하고 미신을 반대한다’와 같은 표어를 자주 보았다. 수련생들과 이 일을 교류했을 때 어떤 수련생은 대법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수련생은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것도 빗대어 대법을 모함하는 것이고 은연중에 중생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한 마을위원회 외벽에 붉은색 글씨로 쓰인 ‘파룬궁은 X교이며 전 국민이 배척한다’라는 표어를 보았다. 이 사실을 수련생에게 알리자 수련생은 다른 수련생을 찾아가 ‘파룬궁’ 세 글자를 페인트로 덮었다. 나중에 보니 완전히 덮이지 않고 자국이 남아 있어 별로 이상적이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지울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을 때 그 마을이 철거되

있고 악독한 선전이 적힌 벽은 모두 허물어져 평평하게 밀렸다.

그 후 다른 벽에 ‘사교를 반대한다’라고 쓰인 표어를 보았다. 수련생은 자신이 페인트를 두 번이나 뿌렸지만 모두 원래 표어대로 다시 쓰였다고 했다. 생각 끝에 나는 사교 앞에 공산당을 붙여 ‘공산당 사교를 반대한다’로 바꾸고 그 옆에 테이프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수첩’과 ‘심사명감(深思明鑑)’ 소책자 두 권을 붙여 놓았으며 벽 주변 인가에도 이 두 권의 소책자를 배포했다.

이틀 후 다시 가보니 ‘공산당 사교를 반대한다’는 표어가 지워지지 않았다. 다시 이틀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고 붙여두었던 ‘삼퇴 수첩’과 ‘심사명감’ 책자만 누군가 가져갔다. 1년 후 다시 가보니 내가 뿌린 글씨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상의 경험을 종합해 나는 스프레이 스텐실을 이용해 명혜망에서 제공한 스티커의 표어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1. 먼저 표어 글씨체를 프린터를 이용해 A3 용지에 출력한다(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필요한 뚫린 글씨체 형식으로 변경해야 함).
2. 가위로 종이 공예처럼 글자 모양을 오려낸다.
3. A3 크기의 PVC 재질과 비슷한 얇은 판을 준비하는데 이 재료는 단단하면서도 질겨야 하며 펜촉 모양의 인두기도 하나 준비한다.
4. 오려낸 글씨체 종이를 판에 고정하고 테두리를 따라 그린다.
5. 종이를 떼어내고 테두리를 따라 그린 글씨체대로 인두기로 자른다. 이렇게 스텐실 하나가 완성된다.

‘공산당은 사교다(共產黨是邪教)’ 여섯 글자는 A3 용지 두 장에

한 장당 세 글자씩 세로로 쓰면 되고 다른 짧은 문구는 A3 용지 한 장이면 된다.

우리 지역은 기본적으로 잉크젯 프린터(수성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고 쉽게 퇴색된다.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야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게다가 스티커는 인터넷에서 사야 하므로 대량으로 구매하면 안전 문제가 존재한다.

명혜망에 실린 ‘대지는 화관이다’라는 글이 나에게 깨달음을 줬다. 이런 스프레이 스텐실은 전봇대나 벽면뿐만 아니라 시멘트 바닥에도 사용할 수 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찢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도 모두 시멘트 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없고 농촌 사람들이 자주 산책하고 운동하는 곳,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시골길이나 논둑길 등에서 검은색 스프레이 스텐실이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휴대가 간편해 스쿠터 방풍 덮개 주머니가 크면 그 안에 넣을 수 있어 전혀 눈에 띄지 않으며 직접 만들 수도 있다. 혼자 스쿠터를 타고 가도 되고 처음이라 서투르면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도 된다.

개인적으로 이미 여러 번 해보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 다른 수련생들에게 추천해 사용해 보게 하고 싶다. 목적은 정법(正法) 형세에 협력해 더 많은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중국 대륙의 경제 하락과 민중이 도탄에 빠진 현실에 직면해 많은 일반인들이 공산당을 매우 혐오하고 있다. 대법제자의 행동은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들고일어나 박해를 반대하도록 이끌어 전국민이 박해를 반대하는 천상에 순응하며, 한 사람이 호소하면 여

러 사람이 호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수련생들도 행동에 나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일깨워 박해를 반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층차의 한계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명혜망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차 변환에 관하여

글/ 선과(善果)

[명혜망] 해외 법적 소송을 위한 발정념에 대해, 명혜망 편집부 통지문에 적힌 시간은 ‘미국 동부 서머타임 오전 11시’다. 우리 중국 수련자는 이를 기회로 시차에 관한 상식을 배워야 한다.

베이징과 뉴욕의 시차

미국 동부(뉴욕)의 서머타임은 중국 베이징(타이베이)보다 12시간 늦다. 즉 12시간의 시차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 12’로 표기한다. 서머타임이 아닐 때는 베이징(타이베이)보다 13시간 늦으며, 즉 13시간의 시차가 있어 ‘+ 13’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간단히 말해 미국 동부(뉴욕) 월요일 서머타임 오전 11시는 베이징(타이베이) 시간으로 월요일 밤 11시다.

기타 자주 사용하는 시차를 보면, 예를 들어 미국 서해안의 샌프란시스코와 미국 동해안의 뉴욕 사이에는 3시간의 시차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 3’으로 표기한다. 즉 태양이 동부의 뉴욕을 먼저 비추어, 뉴욕에서 아침 7시에 출근할 때 샌프란시스코는 새벽 4시다.

그리고 유럽의 파리는 뉴욕 시간보다 6시간 빨라 '+6'으로 표기한다.

시차의 본질

이상은 구체적인 지리적 위치에서 말한 것이다. 원리상으로 볼 때 시차의 본질은 지구 자전이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은 360도다. 그럼 360도를 24시간으로 나누면 결과는 15도다. 즉 지구가 경도 15도를 돌 때마다 시간은 1시간씩 차이가 난다.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전 세계는 24개 시간대로 나뉘었다.

본초 자오선(영국 그리니치를 지남)이 기점이며 0시간대(UTC/GMT, 0)로 불린다. 동쪽으로 12개 시간대가 있다(동1구역부터 동12구역, +1에서 +12). 태양이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동쪽으로 한 시간대를 이동할 때마다 시간을 1시간 더한다. 서쪽으로 12개 시간대가 있으며(서1구역부터 서12구역, -1에서 -12), 서쪽으로 한 시간대를 이동할 때마다 시간을 1시간 뺀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시간 옵션에서 베이징, 뉴욕, 타이베이, 서울 등 각기 다른 도시를 설정하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각 도시의 실시간을 표시해 준다.

시차 암산

암산할 때의 핵심 요결은 '동쪽은 더하고 서쪽은 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현재 베이징 시간(동8구역, +8)을 사용한다면 베이징 시간을 기준으로 방향을 본다. 만약 목표 도시가 도쿄(동9구역, +9)라면 당신의 동쪽에 있으므로 시차를 더한다. 즉 '9-8=1시간'이라는 시차를 더한다. 만약 목표 도시가 뉴욕(서5구역, -

5)이라면 당신의 서쪽에 있으므로 ‘ $8 - (-5) = 13$ 시간’이라는 시차를 뺀다.

주의할 점은 더하고 뺄 때 직접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동서 방향에 상관없이 ‘시차’(시간대의 시간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 매우 간단하다. 연습해 보자. 여전히 베이징을 기점으로 할 때, 목표 도시인 타이베이(동8구역(+8))이며 베이징의 동8구역(+8)과의 시차는 $8 - 8 = 0$ 시간이다. 호주 동부의 시드니는 동10구역(+10)이므로 $10 - 8 = 2$ 이며, 동쪽에 있기 때문에 베이징보다 2시간 빠르다.

중국은 비록 지리적으로 5개 시간대에 걸쳐 있지만 전역에서 베이징 시간(동8구역, UTC+8)을 통일적으로 사용하며, 그리니치(UTC/GMT/0시간대) 시간보다 8시간 빠르다.

서머타임의 장단점

서머타임은 현대 사회의 산물로, 가장 큰 수혜자는 현대 상업이다. 예를 들어 소매업, 관광업, 골프 등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야외 산업이 그렇다. 퇴근 후에도 날이 아직 밝아 사람들은 골프를 치거나 쇼핑을 하고, 야외 바비큐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술을 마시고 식사할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느낀다. 어린이들은 사탕이나 시원한 음료를 사러 갈 수 있는 등이다.

미국의 서머타임은 매우 고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어느 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3월과 11월의 일요일을 본다. 시작 시간은 매년 3월의 두 번째 일요일(새벽 2:00,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돌림)이다. 종료 시간은 매년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새벽 2:00,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림)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봄에 시계를 앞으로 돌리는’ 그 월요일이 되면, 미 전역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상승하고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며

지각하는 사람이 폭증해 언론의 계절성 보도 내용이 된다고 한다.

서머타임을 시행하는 전 세계 국가와 도시는 시작과 종료 시간이 각기 다르다. 주요 요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남북반구의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각국의 규정과 시작 및 종료 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 대부분 국가는 3월부터 10월까지 서머타임을 보내지만, 3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해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끝나므로 미국 시간과 맞지 않는다. 호주는 5개 시간대에 걸쳐 있고 서머타임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다. 중국도 5개 시간대에 걸쳐 있지만 모두 베이징 시간을 사용하며 서머타임을 취소했다.

서머타임제 채택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절약’과 ‘농민의 편의’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명 전기료를 절약해도 곧 더 많이 켜 에어컨 전기료로 상쇄돼 에너지 절약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게다가 일 년에 두 번 시계를 조정하면서 기차 시간표와 항공편이 혼란해지고 사람들이 시간을 잘못 기억하는 일이 잦다. 반면 미국 농민들은 처음부터 서머타임을 반대했다.

자연 법칙을 존중하는 본질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쉰다.’ 음양은 순환하고 사계절에 운치가 있다. 일 년 사계절 음양의 변화는 만물 생존의 법칙이므로 사람, 동물, 식물을 막론하고 봄여름에는 양기를 축적해 성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을겨울에는 음기를 축적해 수장(收藏)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 법칙에 순응해야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다.

미국처럼 의약이 매우 발달한 국가에 오히려 흔한 질병과 건강 문제(정신 및 신체적 측면 포함)가 너무 많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약업계가 돈을 벌기 위해 상업적 운영을 하

고 식품 첨가물과 방부제가 너무 많은 등 뻔히 보이는 요인 외에도 사람들이 대자연의 천연 법칙(천도)을 경외하기보다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학을 맹신하는 것 역시 많은 건강 문제를 초래하는 큰 원인이다.

‘자연 법칙’은 사실 ‘마음대로’라는 의미의 ‘자연’이 아니며 무작위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신의 숨씨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람은 신께서 창조하셨고 천지만물(계절 포함) 역시 신께서 창조하셨음을 모두 안다. 따라서 사람과 농작물 모두 천시에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에 순응하고 신이 내려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을 존중하는 본질은 신이 사람에게 만들어 주신 생활 법칙과 건강의 길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기에 선량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과 장수의 길이다.

12389에 전화해 경찰의 악행 저지하기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20여 년 동안, 파룬궁수련생은 자주 괴롭힘, 납치, 협박 등의 박해를 받았다. 최근 명혜망 보도에서 일부 지역公安국이 파룬궁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생체 정보를 수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봤다. 나와 관련된 경험을 적어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한다.

어느 날 관할 파출소 경찰이 전화해서 파출소로 와서 개인 생체 정보 수집에 협조하라고 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개인 생체 정보를 수집하려 하느냐고 말했다. 경찰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라고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나는 국가의 합법적인 국민인

데, 내 개인 생체 정보를 수집하려면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 규정에는 범죄자의 개인 생체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며, 당신은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니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전에 공의포럼(公義論壇)에서 명혜망에 발표된 수련생의 교류 글 한 편을 읽은 적이 있다. 역시 경찰이 집에 찾아와 불법적으로 수련생의 혈액을 채취하려 했는데 수련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에게 그들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설명해도 효과가 없자, 12389에 전화해 고발했더니 경찰이 즉시 전화를 받고는 감히 악행을 저지르지 못했고 분위기가 갑자기 누그러졌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떠날 때 “앞으로 잘 사쇼, 우린 다시는 안 올 테니”라고 말했다.

내가 나의 합법성과 경찰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해도 경찰은 무시했다. 경찰은 내가 협조하지 않는 것을 보자 사납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반드시 30분 내로 파출소로 와. 30분 내로 오지 않으면 당장 네 집으로 가겠어.” 나는 말했다. “당신은 법을 어기고 내 생활을 방해하고 있으니 12389에 전화해 고발하겠습니다!”

경찰의 전화를 끊고 즉시 12389에 전화를 걸어 경찰의 규정 위반과 위법 행위를 고발했다. 12389에서는 파룬궁 문제 때문인지 묻고는 나의 고발을 접수했으며, 곧바로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겠다고 했다. 12389에 고발 전화를 마친 후 경찰은 다시는 전화를 걸어 괴롭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시련은 나의 단호한 고발 속에 해소됐다.

공의포럼 수련생의 교류 글에 따르면, 파출소에서 자체적으로 확대한 일부 조문 규정은 모두 위법이다. 파룬궁수련생의 집에 찾아

와 괴롭히고, 사진을 찍고, 피를 뽑고, 납치하고, 협박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고 규정 위반이다. 중공 경찰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상급의 임무를 완수하려 하며, 선을 권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 법을 이야기해서 위법한 경찰의 악행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면 고발, 고소,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의 방식이 경찰의 위법 행위를 저지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이 그들의 이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수련생들에게 명혜망에 발표된 글 ‘고발과 편지로 진상을 알리고 법을 실증하다’를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수련생이 법을 이용해 반박해(反迫害)에 나서자, 파출소장이 해임돼 다른 파출소의 일반 경찰로 가게 됐고, 직급도 몇 단계 강등됐으며, 매달 월급이 수천 위안 줄어 일 년에 수만 위안이나 깎였다고 한다. 이 일은 공안 시스템 내에 퍼져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줬다. 주민센터 서기도 해임돼 일반 간사가 됐고 역시 급여가 삭감됐다. 파룬궁을 박해하다가 관직도 잃고 이익도 잃은 이 사건을 현지 정부 관리와 공안 인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수련생들은 수련생이 법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한 교류 글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또한 명혜망 수련생들이 법을 이용한 반박해 교류 글을 특집판으로 정리해,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수련생들도 법을 이용한 반박해 지식을 편리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좋은 교류의 장을 제공해 준 명혜망, 공의포럼 수련생들에게 감사드린다!

발정념을 중시하면 발정념을 잘할 수 있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평소 전 세계 네 차례 정시 발정념 외에도 수년 동안 밤 8시, 9시, 10시에 세 번 더 발정념을 했고 매번 15분씩 했다. 하지만 이전 꽤 긴 시간 동안 혼자 발정념을 할 때, 앞의 5분간 자신을 청리할 때 잡념의 교란을 많이 받았고 뒤의 10분간 밖으로 정념을 발할 때는 모두 비교적 피곤하다고 느꼈다. 어떨 때는 꽤 오래 발정념을 한 것 같아 시간을 보면 5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많은 경우 억지로 버티며 겨우 발정념을 마쳤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효과가 꽤 괜찮을 때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비교적 적었다. 발정념을 잘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내 주변에 어떤 수련생은 이미 오후 6시 정시 발정념을 할 때 시간을 6시 반까지 연장해 줄곧 견지해 왔다. 나는 이런 수련생과 함께 몇 번 발정념을 해봤는데 효과가 괜찮다고 느꼈고 과정에서 비교적 편안함을 느꼈다. 사람이 많을 때 에너지장이 더 강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서 6시 반까지 발정념 하기에는 여전히 비교적 어렵다고 느꼈다. 한두 번 시도해 봤지만 견지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며칠 전 명혜망에서 수련생의 교류 글 ‘발정념을 중시한 체득’을 보고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 수련생이 발정념을 중시하고 장시간 견지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커서 자신이 발정념 방면에서 그저 대충 넘기며 얼버무리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수련생은 글에서 ‘우리 지역 수련생들이 정체(整體)를 형성해 매번 4번의 정각에 10분간 발정념을 마친 후 30분까지 연장해 지역

발정념을 해 이 지역 다른 공간의 사악한 요소를 제거한 이후 우리 지역에서 대법제자를 납치하는 박해 사건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를 통해 정체가 협력해 발정념을 하는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으며 본래 악은 올바른을 누를 수 없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글에서 수련생이 있는 지역이 '매번 4번의 정각에 10분간 발정념을 마친 후 30분까지 연장해 지역 발정념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우러나왔다. 나도 이렇게 발정념을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수련생의 교류 글을 읽은 다음 날부터 나는 낮 12시 정시 발정념을 12시 반까지 연장했다. 그날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금부터 시작하자'라고만 생각했다. 뜻밖에도 발정념 과정에서 사상이 집중되고 또렷해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아주 가볍게 12시 반까지 발정념을 마쳐 단번에 큰 고무를 받았다. 오후 6시, 밤 12시에도 모두 30분까지 발정념을 했고 아주 편안하게 마쳤다. 발정념을 할 때 마치 많은 수련생이 함께 발정념하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졌다. 이틀 동안 모두 이렇게 발정념을 했고 다만 아침 6시만 15분이었다. 나는 내일 아침부터 6시 발정념도 30분까지 늘리기로 다짐했다. 그 밖에 안으로 자신을 청리할 때 시간이 허락하면 시간을 늘렸는데, 예를 들어 정시 발정념을 할 때 55분부터가 아니라 50분부터 자신을 청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발정념을 한 후 발정념 자체의 효과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나를 장기간 괴롭혀 온 휴대폰 중독이 줄어들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됐고 다른 일부 집착과 욕망도 작아졌음을 발견했다.

내가 이 교류 원고를 쓸 때 문득 전날 아침에 가부좌할 때 눈앞에 커다란 '쌍희(囍)' 글자가 나타났던 일이 떠올랐는데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늘 나는 조금 이해하게 됐는데, 그것은 아마도 사부님께서 내가 발정념 방면에서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 격려해주신 것일 것이다.

내가 시간을 늘렸다고 해서 왜 발정념 효과가 좋아졌는지 지금 생각해 봤다. 나는 단지 시간을 늘린 것만큼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수련생의 교류 글을 볼 때 나는 진정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거대한 격차를 보았고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 자신을 제고하고 변화시키려 했음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나는 현재 국내외에서 사악한 요소가 여전히 이렇게 창궐하고 있으니 더 많은 대법제자가 진심으로 발정념을 잘해야만 더 많은 악을 해체하고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당시 내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일념이 법에 부합하고 사부님의 정법(正法) 요구에 부합했기에,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발정념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시고 내가 발정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악한 요소를 제거해 주시며 내게 강대한 힘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발정념 효과가 좋아졌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나는 우리가 발정념을 할 때 더 이상 임무를 완수하거나 형식적으로 거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방면에 책임감을 갖고 진정으로 발정념을 중시할 때 비로소 발정념을 잘할 수 있으며, 그저 발정념을 한 데 그치지 않게 됨을 발견했다.

최근 발정념 방면에 관한 내 경험을 글로 적어 더 많은 수련생에게 깨달음과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비록 이미 정법의 최후 시기에 이르렀지만 국내외에서 사악의 표현은 여전히 매우 창궐해 중국 각지에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납치와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각지에서는 공산 사악주의가 여전히 미친 듯이 확장하며 더 많은 세인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현상 뒤에는 사실 바로 그런 구세력 잔당, 홍마(紅魔), 공산사령(共產邪靈)이 작용하고 있다. 누가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 사부님께서서는 한순간에 그것들을 모두 청리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실 수는 없다. 대법제자는 이 속에서 사명이 있으며 어떤 일은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대법제자에게 분배된 반드시 해내고 잘해내야 할 책임이다. 사실 이 과정은 또한 사부님께서 대법제자에게 위덕을 세우고 제고하며 승화할 수 있도록 남겨주신 기회이기도 하다.

오직 대법제자가 강대한 정념으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상 뒤의 사마(邪魔)를 제거해야만 더 많은 세인이 깨어날 수 있고 더 많은 생명이 대법의 제도를 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발정념을 잘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다.

국내외 더 많은 대법제자가 자신과 속인의 관계를 바로잡고 어떤 속인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든 포기하며, 더 이상 이 혼란스럽고 유혹적인 시사와 세상일에 이끌리거나 교란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대법제자가 마땅히 잘해야 할 모든 일에 전념하고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책임과 사명을 진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발정념을 중시해 자신의 조건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들여 발정념을 잘하고 더 많은 구세력 잔당, 홍마, 공산사령을 제거함으로써 구세력이 중생을 횡멸하려는 배치를 타파해 더 많은 중생이 대법의 제도를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는 약간의 개인적인 인식일 뿐이니 부족한 부분은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사부님께서时时각각 지켜주신 수련의 길

글/ 헤이룽장 대법제자

[명혜망] 1966년 6월 26일 밤, 나는 아직 잠들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내 머리맡에 서서 “자네 동북으로 가게, 동북에 리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네를 보살펴줄 걸세……”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인연

내 본적은 산둥(山東)이다. 우리 7남매 중 나는 셋째였다. 우리 집 땅은 6무(畝, 1무는 약 200평)밖에 되지 않았고 아들만 넷이었기에 아버지는 우리가 장가를 못 갈까 봐 큰형과 둘째 형을 셋째 외삼촌을 따라 동북으로 가게 했고, 나와 넷째 남동생은 집에 남았다. 이때 토지가 국유화돼 합작사에 들어갔다.

우리 마을에 류(劉) 씨 성을 가진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가장이 병이 많았다. 나와 동갑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아내로 주겠다고 했다. 이런 뜻밖의 좋은 일을 만나자 부모님은 즉시 결정해 약혼시켰다. 그해 내 나이는 겨우 14세였다.

2년 후, 미래의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20세가 됐을 때 류 씨 집안에서는 이 혼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아버지가 중매인을 보내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부모님에게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으니 지금 차라리 잘됐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동안 우리집에서 그 집에 준 게 많은데 혼사가 깨지면 돌려받지도 못해”라고 하셨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어머니에게 “제가 그 집 가족을 만나볼게요”라고 말했다. 비록 약혼한 지 6년이나 됐지만 우리 둘은 한 번도 말을 나뉘본 적이 없었다. 그녀 집에 도착해 가족을

만나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혼사는 양가 어른들이 정하신 거지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당신은 이 혼인에 동의하나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는 이 일을 꺼내지 않겠습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날을 잡아 결혼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난처해하며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라고 했다. 나는 “안 돼요. 성사 여부는 오늘 당신이 결정해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우리는 그녀 가족의 반대 속에 결혼했다. 결혼식 날 밤, 나는 북쪽 벽에 한 여성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40~50대 정도로 보였다. 나는 깜짝 놀랐고 아주 또렷하게 보였는데 다시 사라졌다.

결혼 이듬해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해가 바로 1966년이었는데, 산동에 큰 가뭄이 들어 1인당 25kg의 밀이 분배됐고 옥수수는 모두 말라 죽었다. 이런 해에는 굶주릴 수밖에 없어 나는 아내와 상의해 동북으로 가려 했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반대하셨다. 아버지는 동북에서는 남녀노소가 모두 한 온돌방에서 자기 때문에 지낼 수가 없다고 하셨다.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들은 배급 식량을 먹고 있어 우리에게 줄 여유 식량도 없었다.

6월 26일 밤으로 기억한다. 나는 아직 잠들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내 머리맡에 서서 “자네 동북으로 가게, 동북에 리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네를 보살펴줄 걸세. 이 사람은 40세가량의 나이에 중간 체구이고 중산복을 입고 있네”라고 말하고는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너무나 또렷하게 보았다. 그래서 나는 동북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동북으로 가 대법을 얻다

나는 동북에 온 후 리 씨 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친구로 사귀었다. 2개월 후 아버지에게 50위안을 보냈고, 아버지는 답장을 통해 이제 내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안심하셨다. 그동안 나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생명이 위태로운 적도 10여 차례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할 때가 되면 즉시 전환점이 생겼다. 가장 위험했던 한번은 내가 나무에 기대어 돌을 깨고 있을 때였다. 산 위에서 남쪽 방향으로 굴러 내려보낸 큰 돌이 아래로 구르다가 중간에서 방향을 틀어 내 쪽으로 직진해 굴러왔다. 5~6m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갑자기 2m 넘게 튀어 올랐고, 그 큰 돌은 내가 기대고 있던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아 산 아래로 떨어뜨렸다.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멍해졌다.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니 오싹했다.

내가 53세 되던 해 가을, 계속 기침이 났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이듬해 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여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종양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폐암 말기 진단이 나왔다. 온 가족이 절망 속에 울었고, 병원 진료와 검사에 많은 돈을 써서 빚이 많았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주었다. 처음에는 볼 기분이 아니었지만 4일이 지난 후 책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보려고 하다가 한 번 읽기 시작하자 내려놓을 수 없게 됐다. 책에서 업력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보고 나는 ‘만약 내 몸에 5천 kg의 업력이 있는데 하루 연공으로 50kg을 소멸할 수 있다면, 내 몸의 업력이 50kg 줄어드는 셈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나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읽었다. 내일 다시 읽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 계속 이어서 읽었고 새벽 4시까지 읽었다. 잠시 잠들었다 깨어나면 다시 이어 읽으

며 연속해서 10여 일을 보았더니 눈이 충혈됐다.

책에서 연공으로 가지(加持)해야 한다고 해서 나는 연공장에 가서 공법을 배우며 정성껏 따라 배웠다. 20일 후 아침에 참장(站樁)을 할 때, 머리 위 포륜(抱輪) 동작에서 손을 들어 올리자마자 뺏줄로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부터 둥그런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올라와 숨을 쉴 수 없음을 느꼈고,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 종양병원 의사가 급성 종양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을 바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더라도 연공은 다 마치고 죽자’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구토를 했는데 무엇을 토했는지 차마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연공을 마친 후 무엇을 토했는지 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입안이 끈적거리고 비린내가 났다. 밤에 잠을 잘 때 비몽사몽간에 한눈에 30km 밖까지 볼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다가왔는데, 한 명은 숨 두루마기를 입고 악비(岳飛)와 같은 투구를 쓴 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뚱뚱하고 덩치 큰 승려였다. 그들은 내 머리 위를 지나갔는데, 지나간 후 노인이 다시 돌아와 나에게 “지금부터 자네 병은 다 나았네, 절대 일하느라 피곤해지지 말게”라고 말했다. 나는 ‘견지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나는 살아갈 희망을 품게 됐다.

어느 날 보도원이 나에게 “어느 연공장에서 사부님의 공법교습 비디오를 틀어주니 가서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연공 동작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 연공장에는 10여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먼저 동작을 해보라고 한 이후 사부님의 공법교습 비디오를 틀어주었다. TV에 사부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표정이 물처럼 고요하셔서 나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다. 공법교습 비디오

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나를 아는 한 수련생이 자기 집에 가서 사존의 법상을 보자고 초대했다.

나는 법상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이분은 바로 1966년 내 머리맡에 서서 “동북으로 가게, 동북에 리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네를 보살펴줄 걸세”라고 말씀하신 분이셨다! 알고 보니 사부님이셨구나! 내 눈물은 어떻게 해도 통제할 수 없었고, 마치 태어나서 가장 친근한 분을 처음 뵙는 것 같았다. 그 수련생은 그렇다면 사부님 법상을 집으로 모셔 가라고 했고, 이렇게 사부님 법상이 우리 집에 오게 됐다.

사부님께서 매번 나를 구해주시다

당시 나는 천목(天目)이 열리는 것에 대해 잘 몰랐지만, 정공을 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과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연공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 그리 밝지 않은 손전등을 내 앞으로 비추는 것 같아 뒤돌아보니 빛이 또 등 뒤로 갔다. 내가 한 바퀴 돌자 빛도 따라서 한 바퀴 돌았고, 나는 그 빛이 내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임을 발견하고는 눈에 병이 생겼나 보다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자려고 눕자마자 온몸이 짓눌려 움직일 수 없음을 느꼈고, 눈동자도 돌릴 수 없었으며, 머리에서 심한 소리가 나며 생명이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직 못다 한 일이 뭐가 있지? 다른 사람이 내게 빛을 지고 안 값은 건 전생에 내가 그에게 빚진 거로 치더라도, 내가 남에게 빚진 것은 어찌지?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에휴, 자식에겐 제 살길이 있겠지.’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내려놓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공을 다 연마하지 못했으니, 죽더라도 나는 수련해야 해.’ 약 10분 정도 지나자 머리가 조

금 움직였고 눈도 움직일 수 있었으며 온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나는 일어나 사부님께 절을 올리며 소리 내어 울었다. 사부님께서 또 나를 구해주셨고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또 한번은 밤에 연공장에서 가부좌하고 연공할 때였다. 건물의 문은 닫혀 있었는데, 나는 천목으로 큰길에 버스 한 대가 와서 건물 아래 도로에 정차하는 것을 보았다. 차에서 두 명의 여성이 내렸는데 30대 정도였고 둘은 얼굴도 같고 입은 웃도 같았다. 차에서 내린 후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계단으로 들어와 연공장 쪽으로 왔다. 이때 연공장의 문이 열리고 입구에 많은 사람이 가득 차서 마치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 두 여성은 연공장으로 비집고 들어와 사람들을 한 명씩 살피더니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을 때 안색이 크게 변했고, 눈을 부릅뜨고 성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생각했다. ‘어느 전생에 저 사람들에게 목숨을 빚졌거나 무슨 빚을 져서 오늘 빚을 받으러 왔나 보다. 내가 정말 목숨을 빚졌다면 갚을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대법을 배우고 있고 사부님의 관리를 받는다. 만약 사부님께서 내게 갚으라고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갚을 것이며 모든 것은 사부님 말씀에 따르겠다.’ 이 두 여성이 내게 2m도 채 안 되게 다가왔을 때, 나는 천목으로 사부님께서 멀리서부터 오시는 것을 보았다. 노란 옷을 입으시고 순식간에 내 왼편에 서셨고, 두 여성도 내 곁에 도달했다. 나는 가부좌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사부님과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대치하다가 떠나갔다. 내가 사부님을 몰래 쳐다보니 사부님께서 두 눈썹을 짹 찌푸리고 계셨다……. 입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고 사부님도 사라지셨다. 갑자기 어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몹시 처절했다. 내가 출정(出定)한 이후, 현장에 있던 수련생들에게 오늘 밤 연공장에서 일어난 일과 여자의 울음소리에 대해 물었으나 그들은 모두

모른다고 했다. 연공장에서 나는 이 두 여성이 우는 소리를 사흘 밤 동안 들었고, 그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지경이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들리지 않았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연공장에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에게 왜 연공을 못 하게 하냐고 물으니 윗선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연공장은 없어졌지만 나는 매일 법공부와 연공을 견지했다.

나는 수련생들과 함께 시골 마을로 내려가 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었다. 어느 날 내가 ‘9평 공산당’을 다 배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임무를 완수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는지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들고 서 있을 수 없었으며 밥도 먹을 수 없었고 10여 일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 수련생도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아요, 업력을 소멸하는 중이에요”라고 말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권했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나는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難忍能忍, 難行能行)’(전법륜)라는 법리를 떠올리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16일째 되던 날 오후 4시경 구토가 쏠려 토하고 또 토했다. 목구멍이 짠맛이 나서 보니 토한 것이 모두 검은 피였다. 한참을 토하고 나니 밤 10시가 됐고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나설 때 머릿속으로 바람이 휩 들어오는 느낌이 들며 머리의 한 작은 부분이 비워져 아주 편안했다. 물을 몇 모금 마시고 사흘을 더 토하고 나니 머리가 완전히 비워져 아무것도 없는 듯 무척 편안해졌다. 한밤중에 깨어 배가 고파 국수 세 그릇을 먹고 물을 많이 마셨다. 마음속에 더욱 확신이 생기자 또다시 토하기 시작했는데, 토사물이 목을 굽는 느낌이 나서 보니 모두 돌가루였다. 수년간 돌을 깨며 들이미셨던 것이었다. 이 죽음의 고

비도 이렇게 넘기게 되니 정말이지 ‘버드나무 우거지고 꽃 밝은 곳에 또 하나의 마을이 나타나네(柳暗花明又一村)’는 시구 그대로였다!

2000년, 한번은 새벽 4시에 한 농촌에 가서 진상을 붙이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당했다. 경찰이 나를 구류소로 이송했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가 넘었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고급 식사(개인이 비싼 돈을 주고 사는 밥)인 쌀밥과 생선, 반찬을 가져왔다. 다들 “어서 드세요! 당신 겁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막 들어왔고 가족도 모르며 영치금을 넣어준 사람도 없는 데 고급 식사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배도 고프니 먹자’라고 생각했다.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누군가 이름을 잘못 보았다며 내 밥이 아니라고 음식을 가져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내가 아침을 못 먹은 것을 아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이렇게 일깨워주신 것이었다. 구류소에 있는 동안 정보과 과장이 나를 심문하며 “당신의 폐암은 화학 치료로 나은 것이요, 연마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집으로 보내주겠소”라고 말했다. 나는 “안 됩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수련을 하면 살 수 있고 수련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사람을 풀어주시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수련은 바로 용광로다

2001년 선달 스무아흐렛날, 나는 또 잡혀갔다. 감방에는 6명의 수련생이 있었고 우리는 함께 감방에서 설을 보냈다. 감옥경찰이 오늘은 무슨 말을 해도 좋다고 했다. 다들 “우리 각자 대련(對聯)

을 한 쌍씩 말합시다”라고 했다. 당시 상황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말한 상련은 ‘대법이 널리 전파되어 천하의 인연 있는 사람을 제도할 수 있네’였고, 하련은 ‘진실하게 수련하는 제자는 생사를 잊고 용문(龍門)에 뛰어드네’였으며, 가로 현판은 ‘법정건곤(法正乾坤)’이었다. 그들은 내가 한 일이 너무 많아 풀어줄 수 없다며 오랫동안 내보내 주지 않았다. 결국 가족들이 뒷문으로 3천 위안을 낸 후에야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에 돌아온 후 가족들은 파룬궁을 수련하면 후손이 군대에 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며 나에게 불만을 표했다.

2010년은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 이 해에 아내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은 45세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나는 그를 구할 방법은 수련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몇몇 수련생이 그와 함께 법공부와 연공을 했지만,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다. 나는 수련하면 살아야 하는데 왜 보살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내가 정공을 할 때 큰아들이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지만 위엄도 있는 법이다.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오후, 그가 웃길래 내가 왜 웃느냐고 물으니 사부님께서 오셨다고 했다. 1년 후 나는 가부좌 중에 아주 높은 공간에 자그마한 집이 있고, 문이 서북 방향으로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방안에는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내 큰아들이었다. 바람이 너무 불어 추울 테니 문을 닫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내가 문을 잡고 닫으려 할 때, 사부님께서 나를 끌어당기며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는 출정한 후 그가 아직 고생을 다 겪지 않았기에 다른 공간에서 고생하며 업력을 소멸하도록 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고작 40여 일 수련했을 뿐인데도 사부님께서 그를 보살펴주셨다. 보니 누가 수련하든 결코 헛되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친척과 친구들은 내게 새로운 짝을 찾으라고 권했고 자식들도 동의했다. 몇 명을 만나보았지만 모두 마땅치 않았다. 하루는 한 음양선생(陰陽先生, 지관)이 자기 여동생이 54세인데 남편이 죽어 재가하려 한다며 나더러 만나보겠냐고 물었다. 그가 여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 바로 내가 아내와 결혼하던 날 밤 북쪽 벽에서 걸어 나오던 그 여성이었다. 조금도 틀림없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 이후 생활은 줄곧 아주 좋았다. 그런데 2년 이후 나는 층차가 떨어진 것을 느꼈고, 내 자신이 틀렸으며 재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킬 수 없으니 헛수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 이 일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집은 시장 근처에 있었다. 어느 날 정공을 할 때 나는 사부님의 법신이 오신 것을 보고 급히 마중을 나가며 “사부님, 이렇게 바쁘신데 어찌 오셨습니까. 방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닭을 팔러 왔다”라고 하셨다. 내가 보니 광주리에 정말 세 마리의 닭이 있었다. 사부님은 사라지셨고 나도 출정했다. 어찌 된 일인지 생각해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어디서 또 잘못됐는지 몰랐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나는 가부좌 중에 깨달았다. 나는 닭띠고, 내 전처도 닭띠였으며, 후처도 닭띠였다. 나는 깨닫게 됐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동안 술한 비바람을 겪으며, 대법 수련은 바로 용광로처럼 대법제자를 강철로 단련시켜 낸다는 것을 느꼈다. 수련은 반드시 고생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이 고생을 견뎌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고생은 대법제자의 심성 경지를 끌어올리는 진귀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지식 수준이 낮아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나는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정정당당해야 한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 [정진요지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 나는 사부님의 법을 깊이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위력을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이다.

2002년 말, 나는 베이징에 가서 법을 실증했다는 이유로 1년형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3월 5일 창춘(長春) 진상방송 사건 이후, 중국공산당(중공)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면서 창춘에서 많은 대법제자가 붙잡혔다. 한동안 노동수용소, 감옥 등은 수감자로 가득 찼다. 내가 갇힌 노동수용소에는 7개 대대가 있었고, 대대마다 수감자가 거의 3~4백 명에 달했다.

2003년 새해 첫날, 노동수용소는 이른바 ‘전향’ 성과를 표창하기 위해 새해 첫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전향’한 수련생들이 가족을 노동수용소로 불러 오전에는 공연을 보게 하고, 점심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수용소 측은 ‘맛있는 음식을 이미 다 준비해 뒀다’라며 큰소리쳤다. 한때 신청자가 꽤 많았다.

당시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나는 저녁이 되자 늘 그렇듯 줄을 서

서 다른 층 작업장으로 일하러 갔다. 노동수용소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밥 먹는 시간과 저녁 7시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작업장에서 일해야 했다.

저녁 7시 화장실을 갈 때 A 수련생이 나를 붙잡고 말했다. “알아요? 마옌이 사부님과 대법을 공격하는 연설문을 열몇 편이나 썼는데, 내용이 정말 듣기 거북해요. 내일 오전 모든 가족들 앞에서 연설한다는데 이거 사람 해치는 일 아닌가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라고 하자 그녀가 말했다. “연설하게 놔둘 순 없어요, 무조건 막아야 해요. 우리 둘이 대장을 찾아가서 얘기해봐요. 오늘 밤은 대장이 당직이에요.” 나는 “좋아요, 같이 갈게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잘 못 하니까 가면 당신이 대장하고 얘기해요”라고 했다. 그녀는 “그래요, 우선 후랑한테 가서 보고해요”라고 했다. (후랑은 감옥경찰에게 연락을 넣고 보고하는 당번으로, 24시간 감옥경찰 사무실 문 앞을 지켰다.)

A 수련생은 대학을 졸업한 회계사 출신으로 사부님의 설법을 많이 외울 줄 알았다. 그녀가 설법을 많이 적어줘서 나도 외울 수 있었기에 내게 큰 도움이 됐고, 그녀와 같이 있으면 나는 몹시 든든했다.

그때 후랑이 이미 대장에게 보고를 마친 상태였다. 후랑은 노동수용소의 싱 주임이 사무실에서 대장과 얘기 중이니 우선 작업장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와 A는 어쩔 수 없이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A가 내게 말했다. “내가 이 싱 주임을 아는데, 엄청 사악한 자예요.” 이번이 A에게는 두 번째 강제노동이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강제노동은 1999년이었는데, 당시 노동수용소 감옥경찰은 그녀에게 ‘전향’을 강요하며 전기봉 9개로 동시에 머리를 지켰다. 그 바람에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 머리는 큰 광주리처럼 툭툭 부어올랐다. 이 싱 주임이 바로 그해 그녀를 박해하는 데가담했던 자였다.

잠시 후 후랑이 나를 부르러 와서는 대장이 나더러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내가 “A도 나와 같이 갈 거예요. 우리 둘이 약속했어요”라고 하자 후랑은 “난 당신이 대장을 만나겠다고만 했지, A 얘기는 안 했어”라고 했다. 순간 나는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가슴이 저도 모르게 쿵쾅거렸고 손발도 부들부들 떨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가서 무슨 말을 하지? 난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나는 중학교를 겨우 나온 시골 아낙네고 말주변도 둔해서, 수련생과 같이 가면 옆에서 거들기만 하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주인공을 하라니, 억지로 등을 떠미는 거잖아?’ 나는 걸어가며 계속 속으로 툭툭거렸다.

하지만 대장 사무실 앞에 다다라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법제자다. 마땅히 정정당당해야 한다, 두려워해선 안 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대놓고 말하자.’ 대장이 들어오라고 불렀을 때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고, 마음이 아주 든든해진 것처럼 대장을 뻔히 쳐다보며 말했다. “내일 마옌이 연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사부님과 대법을 공격하는 것이라면서요.”

대장이 갑자기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다. “그래, 그런데 왜?” 내가 “우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맞은편에 있던 싱 주임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도 ‘와르르’ 소리를 내며 밀렸다. 그는 책상을 쿵 내리치며 고함쳤다. “뭐야? 너희가 허용을 안 해! 네가 뭘 어쩌겠다고! 아주 미쳐 날뛰는구나!” 대장도 동시에 악을 썼다. “누

가 너희한테 그런 간담이를 줬어,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그때 나는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로 맞받아쳤다. “만약 그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 연설한다면 저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칠 겁니다. 게다가 저 혼자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때 가면 많은 사람이 같이 외칠 겁니다. 제가 천안문에 가서도 당당히 외쳤는데, 이깟 작은 노동수용소쯤이 무섭겠습니까?” 두 사람은 내 말을 듣더니 아무 소리도 못 했고, 방금 전까지 등등하던 사악한 기세가 단번에 꺾였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대장이 내게 말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돌아가.” 이렇게 앞뒤 합쳐 2분도 안 돼서 나는 밖으로 나왔다.

작업장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으니 가슴이 마구 뛰었고,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지며 무서웠다. 저녁 8시 일이 끝날 무렵, A와 수련생 몇 명이 몰래 나를 보러 왔다. 당시 다들 바오자(包夾: 수련생을 밀착 감시하는 수감자)에게 감시받고 있어서 수련생들은 늘 몰래 접촉해야 했는데, 다들 나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내가 방금 겪은 일을 쪽 들려주자 A는 좀 걱정하며 말했다. “당신은 그 자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대장이 내일 당신을 괴롭힐까 봐 걱정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뱀은 말이니까, 내일 정말 마옌한테 연설을 시켜서 사부님을 비방하게 하면 내가 나서서 외칠 거예요”라고 했다. 다른 두 수련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가 되면 우리도 다 같이 나서서 외쳐요”라고 했다. A는 “다른 대대 수련생들한테도 어떻게든 알려서 그때 다 같이 외치게 해요”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감옥경찰들은 회의를 열었다.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아무도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떴지 않고 무대를 주시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마옌은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공연 내내 사부님과 대법을 공격하는 연설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대대의 연설도 임시로 취소됐다고 들었다. 공연이 끝난 뒤 내 곁에 있던 감옥경찰이 풍선 하나를 건네며 “당신이 공을 세웠네!”라고 했다. 당시엔 그 말이 참 우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부님께서 나를 격려해주신 것이었다.

사실 그때 나는 그렇게 강한 정념이 없었다.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억지로 짜낸 것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수련인임을 떠올리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이 일념 덕분에 사부님께서 내게 가지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결국 사악이 중생을 세뇌하려던 연설을 해체하신 것이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已),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전법륜)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발정념 구결이 있다. 우리가 매 순간 발정념을 하고 자신이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하는 대법제자임을 잊지 않으며, 자신이 중생을 구하러 왔고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짊어졌음을 늘 명심하기만 하면 곧바로 걸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사부님의 가지를 얻어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부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시련 속에서 나를 도와준 수련생들에게 감사드린다!

개인적인 깨달음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하루에 세 번 마음을 움직인 일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속인 사회에서 수련하면서 매일 많은 일을 마주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영향이 좀 크고 어떤 것은 좀 작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수련인으로 여기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요구에 따라 수련한다면 심성(心性)을 제고할 수 있어 일거사득(一舉四得)이 될 것이다. 반대로 속인과 같다면 제고할 수 없다.

어느 날, 나는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일을 겪었다. 모두 평범하고 작은 일이었지만, 그 이면에 수련해야 할 것은 매우 컸다.

아침에 출근할 때 사무실 건물과 좀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웠다. 경비 주임이 그것을 보고 나에게 “상사가 여기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라며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알려줬다. 당시 속으로 조금 언짢아져서 ‘다른 사람도 여기에 세우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지? 저 사람 참 참견도 많아’라고 생각했다. 사실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다.

수련인으로서 나는 갑자기 일어난 이 일이 우연이 아님을 금방 깨달았다.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생각들은 모두 밖을 보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는 속인의 생각이었다. 그 생각대로 흘러간다면 속인과 똑같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고, 자칫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안으로 찾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어떤 수련생은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한

다. 왜 찾지 못하는가? 예를 들어 이 일로 마음이 움직였고 속으로 언짢아졌으니 찾아보자.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언짢았을까? 집착심은 어디에 있을까?’ 만약 ‘다 남이 나한테 뭐라고 했기 때문 아닌가? 그가 말단 관리랍시고 저러니까’ 등으로 대답하며 이런 식으로 찾는다면 영원히 찾을 수 없다. 왜일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모두 남을 찾고 남을 탓하는 것이지, 전혀 자신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대답할 때 한 글자를 고쳐서 ‘남’ 때문을 ‘나’로, 즉 ‘나 때문에’로 바꾸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내가 차를 가까이 세우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이 나에 대해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등이다. 만약 아직 찾지 못했다면 그에 따라 계속 아래로 물어본다. ‘왜 편한 것을 찾는가? 왜 남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가?’ 여기에 세우면 덜 걸을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어쨌든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며, 내 체면이 손상되고 깎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대답하면 이기적인 사심과 명예욕이 찾아진 것이 아닌가?

이러한 관념이나 집착심이 작용해 내 마음을 불평하게 만들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법의 요구에 따라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즉시 평온해지고 나아가 남에게 감사하는 마음마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이 문제에서 내 심성은 이미 제고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기적인 마음은 작은 집착심이 아니다. 쟁투심, 과시심, 질투심 등이 모두 그것과 관련이 있으며, 오랜 시간 수련을 거쳐야만 제거할 수 있다.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우리 사무실은 세 사람이 한곳에 있는데, 그날 맞은편 동료는 내가 조용히 책을 보려 할 때 컴퓨터 영상 소

리를 아주 크게 틀었다. 대놓고 말하기는 좀 뭇했지만 속으로는 또 언짢아져서 생각했다. ‘왜 알아서 소리를 좀 줄이지 못할까?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지.’ 하지만 자신을 수련인으로 여기고 이 문제를 다시 보았을 때는 달랐다.

수련인이 마주치는 일은 모두 우연이 아니기에, 시끄러운 소리의 교란을 겪을 때 밖으로 남의 원인을 찾지 말고 안으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 나는 왜 언짢아졌을까?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더 깊이 물어본다. 왜 책을 보고 싶었는가? 책을 통해 얻는 것이 있고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짢았던 진짜 이유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 이 역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선의로 동료에게 주의를 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수련인이 겪는 일은 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문제만 해결하고 자신을 수련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일은 내가 동료와 탁구 연습을 할 때였다. 내가 서브를 넣고 그가 커트로 넘기면, 내가 하회전 공을 드라이브로 치기로 했다. 그런데 동료가 커트하는 공이 자꾸 제자리에 오지 않고 좌우로 빠져서 내가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었다. 그래서 동료에게 공을 좀 더 정확하게 커트해 달라고 했더니 그가 말했다. “정확하지 않으면 자네가 먼저 커트로 넘기고, 내가 다시 커트로 넘길게. 정확하게 올 때 그때 드라이브를 걸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뜨끔했다. 그렇다. 왜 문제에 부딪히면 내 첫 일념은 늘 속인처럼 먼저 밖으로 찾고, 수련인처럼 반대로 먼저 자신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걸까?

사실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공통된 문제를 반영한다. 내가 속인처럼 밖으로 찾는다면 바로 속인이니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수련

인처럼 대법의 요구에 따라 안으로 찾아야만 집착을 발견하고 집착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수련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는 속인 사회에서 속인의 각종 관념과 각종 집착에 둘러싸여 있으며 많은 것이 습관으로 굳어졌다.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밖으로 찾거나, 늘 자기가 옳다고 먼저 말하려는 것처럼 모두 습관이 돼버렸다. 이러한 습관은 많은 관념과 많은 집착을 덮어 감추고 보호해서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한다. 만약 이렇게 밖으로 찾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수련하려 해도 제고하기가 매우 어렵다.

수련 중에 문제에 부딪히면, 밖을 보고 밖으로 찾는 것을 법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보고 자신을 찾는 것으로 바뀌야겠다.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언짢거나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겠다. ‘나는 왜 언짢은가?’ ‘나는 왜 마음이 움직였는가?’ 대답해 보면 그 집착과 그 관념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것을 제거해 나가면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수련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인권에 대한 인식

글/ 은곽(殷郭, 중국)

[명혜망] 나는 1997년에 법을 얻었고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 수련생들에게 참고가 되고 다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권에 대한 내 생각을 표현하려 한다.

나는 1972년에 태어났고 1989년에 고등학교 입시를 치렀다. 1989년 ‘6·4’(천안문 사건)의 상황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텔레

비전에서 말하는 대로만 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정치 선생님은 장시 사범대학을 졸업하셨고 ‘6·4’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주 ‘천부인권’을 이야기하신 개방적인 신사였지만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다. 인권에 대해 중공 교육을 받은 사람과 서양 사람의 이해는 애초에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과 중국공산당(중공)의 악독함은 어디에 있을까?

악독함은 ‘인권’의 함의를 왜곡하고 개념을 바꿔치기했다는 데 있다. 그들이 선전하는 뜻은 이렇다. 서양인은 돈이 많으니 스스로 문명이라고 자랑하며 우리의 인권을 비판하는 것은 곧 우리가 가난하고 야만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 과목은 교과서로 사람들을 세뇌했다. 우리 중국 10억 인구는 배불리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생존권이 첫 번째라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중국인들은 서양이 ‘인권’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질투와 원한이 생겨 서양이 일부러 우리를 깎아내리고 ‘인권’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하게 된다. 마르크스·레닌과 중공은 바로 이렇게 중국인들의 서양인에 대한 원한을 구축했다.

특히 체제 내에 있는 사람은 마르크스·레닌과 중공의 세뇌를 가장 깊이 받았다. 인권을 언급하기만 하면 그는 즉시 반감을 품고 어찌면 폭력으로 괴롭힐지도 모른다. “내가 ‘인권’이 뭔지 맛보게 해주지!”

2019년에 나는 국가안전국 특무(스파이)에게 낚여 구치소에 갇혔다. 이후 나는 체제 내 사람들에게 본성에 따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다. 사람에게에는 입 눈 코 귀가 있고 뇌가 있다. 입은 밥을 먹고 말하는 데 쓰이고, 눈은 보는 데 쓰이며, 귀는 듣는 데 쓰이고, 뇌는 생각하는 데 쓰인다. 물론 배설 계통도 있다!

이것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생리적 기능으로 모든 사람이다 똑같으며 하늘이 준 것이다! 서양은 법치 사회라 권리와 의무를 중시한다. 그래서 사람의 이러한 선천적인 생리 기능을 통틀어 사람의 권리라 부르며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침범할 수 없다고 한다! 천부인권! 신성불가침!

이렇게 하니 체제 내 사람도 스스로 머리를 써서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했다. 그리고 사람을 굶기거나 목마르게 하거나 말을 못 하게 해서는 안 되며, 배설을 못 하게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사람을 때리거나 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예를 들어 ‘악’에 대한 이해가 있다. 다들 중공 악당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일반인은 다 두려워한다! ‘수호전’ 108호 결도 하나같이 살인과 방화를 저질러 악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차이는 108호결에게는 도덕적 마지노선이 있었지만 마르크스·레닌 사교(邪教, 사이비 종교)에는 도덕적 마지노선이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은 제멋대로 필요에 따라 살육하고 공포를 만들어내기에 많은 사람이 그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사교에 관해 말하자면 마르크스·레닌의 강령 문건인 ‘공산당 선언’은 스스로를 마귀, 유령, 괴물이라 칭했는데 이는 모두 번역된 표현들이다.

사교가 숭배하는 것은 바로 마귀이며 마귀의 말을 교조로 삼고 숭배하는 것은 폭력이며 선양하는 것은 원한이고 추구하는 것은 파멸이다!

그것은 자신이 마귀라고 기탄없이 말하니 사실 이것은 딱히 연구

할 것도 없다. 마르크스·레닌 추종자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마귀의 말이라는 이 독약을 어떻게 영양제로 포장해 사람을 해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는 또 공산당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인은 늘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해 마치 집이 넓으면 허물고 새로 짓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그러나 마귀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무엇을 세운단 말인가?

과학을 숭상한다는 것에 대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마르크스·레닌이 그렇게 과학을 숭배한다면 왜 과학 연구나 과학적 관리를 연구하지 않고 온종일 그곳에서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며 자신과 남을 속이고만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부(富)에 관해 말하겠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발전은 천문학적 부를 창출했는데 이는 모두 노동자와 후손의 자원이 쌓여 만들어진 부다. 만약 눈을 감고 사람 수대로 나눈다면 중국인은 저마다 몇백만 위안대 부자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샤오캉(小康,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 이르지 못했는가?

중국인은 그렇게 많은 부를 창출했으니 정상적인 의식주와 교통을 제외하고도 수년 동안 가만히 누워 지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가 조금만 나빠져도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일찌감치 다 횡령당한 것이다.

또한 전쟁과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서로의 부와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 추종자들이 중국인의 부를 소모시킨 것이

다. 투쟁이다! 특히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부를 소모했다! 일반인에게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면서 말이다!

마르크스·레닌과 중공의 거짓말은 모두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추사오원(邱少雲)이 서서히 불에 타면서도 미동도 하지 않았거나 1무(畝, 약 200평)당 1만 근을 생산했다는 것 등이다.

수련하는 사람은 대법 ‘진선인(眞·善·忍)’이 우주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안다. 속인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양심’을 알고 있다. 사람이 짙은 안개 속에서 양심을 더듬으며 걸어가면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상은 내가 공산당 추종자들의 글을 신고할 때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부족한 의견을 먼저 내놓아 좋은 의견을 끌어내려 한 것이다.

사부님께서 나를 대법제자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함께 해 준 명혜망에 감사드린다!

신사신법(信師信法)에 대한 약간의 체득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이미 27년이 됐고, 올해는 명혜망 창립 27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많은 대법제자는 모두 명혜망의 충실한 독자이며, 많은 대법제자가 적극적으로 명혜망에 원고를 투고하는 등 명혜망 발전의 적극적인 참여자이기도 합니다. 저

는 수년 전 겪었던 일을 처음으로 글로 써서 이 짧은 글로 명혜망 창립 27주년을 기념하려 합니다.

1. 교란을 배제하다

사부님께서는 2000년에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경문을 발표 하셨습니다. 그 전에 명혜망에서 머지않아 사부님의 중요한 경문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고를 내어 우리는 모두 새로운 경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가 발표되기 전날 오후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조금 이상하다고만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저는 이것이 바로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신 내용임이 떠올랐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당신에게 또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게 만들어 주어, 이 공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 대체 수련하여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으로 하여금 분간하지 못하게 한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이 나타난 적이 없었기에 저는 이 생각이 제 것이 아님을 인식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진실임을 인식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밖에서 온 좋지 않은 생각을 어떻게 구별하고 그것에 교란받지 않는지 알려주셨습니다.

2. 수련 중 겪은 몇 가지 신기한 경험

저는 천목을 타고 수련해서 다른 공간의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 현상은 제가 모두 겪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설위(玄關設位)입니다. 저는 제2장 공법을 연마하기 시작했을 때 대주천이 통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태음폐경이 통했는데 이 경락의 에너지 흐름이 매우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시 매우 크게 놀랐고 단번에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파룬궁은 출발점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것이 고도의 심오한 공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현관설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다가 현관이 머릿속에 들어간 후 분명해졌는데, 머리가 붓는 느낌이었고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불편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현관이 옥침혈에서 나왔고, 비집고 나올 때 옥침혈이 매우 아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다음 명문혈에서 또 쏘아져 나왔고 명문혈이 매우 아팠습니다. 얼마 후 현관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수련함에 따라 제게도 법에서 말씀하신 개정(開頂)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글자 그대로 개정은 정말 머리가 가운데부터 쪼개지는 것 같았고 매우 아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일 지나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묘유주천(卯酉周天)이 통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몸 왼쪽의 음양 경계 부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은 것처럼 매우 아팠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몸 오른쪽에도 비슷하게 묘유주천이 통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역시 매우 빨

리 지나갔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저는 대법 수련 중의 몇 가지 아주 신기한 현상을 직접 체험해 봤는데 모두 신체적으로 불편했습니다.

3. 신사신법하면 가상은 사라진다

어느 날 제 심장 부위에 갑자기 통증이 나타났는데 대략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탓에 머릿속에 잠시 두려움이 스쳤지만 아주 빨리 그것을 부정했고, 저는 법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뿌리는 모두 우주에 박혀 있으므로 누가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곧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면, 그는 곧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전법륜) 몇 번 외운 후 통증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지만 첫 번째 경험이 있어서 긴장하지 않고 그저 법을 외우자 아주 빨리 정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련 과정에서 아주 깊이 체득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신사신법이 근본이라는 점입니다.

나의 근본 집착을 찾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올해 74세이고 1998년에 기쁘게 대법을 얻었다. 기억하기로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타지에 사는 형님이 전화를 걸어와 나에게 한 가지 공법을 소개했는데 파룬궁(法輪功)이라고 했어. 이 공법이 아주 좋은데, 주로 사람의 도덕 기준을 높이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데 특별한 기적이 나타난대.

‘진선인(眞·善·忍)’ 세 글자에 따라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래.” 나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매우 공감했고 내 사람됨의 기준과 딱 맞았다. 그래서 ‘전법륜(轉法輪)’을 갓 절반쯤 읽었을 때 ‘진선인’을 너무나 잘 설명했고 바르다고 느꼈다. 한 번 다 읽은 후 대법이 사람에게 선을 향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신기한 책이라는 것을 더욱 느꼈다. 마침 내 사람됨의 가치관과도 부합해 스스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느꼈고,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가짐을 안고 수련에 들어섰다.

1. 근본 집착을 찾다

줄곧 나의 근본 집착을 고생스럽게 찾았지만 근본적인 것을 찾지 못했고, 자신이 입문할 때의 생각이 순수하고 바르다고 여겼다. 비록 수련 과정에서 많은 집착심을 찾아내긴 했지만 근본 집착을 찾지 못해 나는 매우 조급했다. 나는 대량으로 법공부하고 법을 외우고 법을 베껴 썼으며,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走向圓滿)’에 관한 사부님 경문과 다른 경문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진지하게 자신과 대조하며 매 구절을 이해했고, 수련생들이 근본 집착을 찾는 교류문장을 많이 보았다. 사부님의 일깨움 속에서 마침내 나의 근본 집착을 찾았다. 나는 처음에 입문한 기점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더 깊이 찾아보니 사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뿌리가 아니었으며, 그 뒤에 얹혀 있는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명예욕이었다!

나는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라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고 부모님을 화나게 하지 않아 꾸중을 듣는 일이 드물었다. 어른들 말씀대로라면 겁이 많고 철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반에서 좋은 학생이었고 선생님과 친구들에

게 공인을 받았다. 출근해서는 상사의 말을 잘 들어 공인된 좋은 사람이었고, 진지하게 업무를 완수하며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일에 전심전력하며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 여러 차례 직장 선진 노동자로 평가받았으며, 공장 내에서 연속 8년간 중공 악당의 3·8 붉은 깃발 기수(三八紅旗手)로 선정되었고 일한 지 몇 년 후에는 악당 당원이 되었다. 짐작할 수 있듯이 대가도 상당히 컸고 고생을 많이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칭찬 속에서 자랐기에 직장에 다니게 된 후로 많은 대가를 치렀고, 칭찬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칭찬 듣기를 아주 좋아해 명예욕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렸다.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수련에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에 법(法)을 배우기 시작할 때 당신들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이치만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책 속에는 부동(不同)한 경지의 이치, 부동한 층차의 이치가 포함되어 있다. 불교 중에서 삼계(三界) 내에 33층의 하늘(三十三層天)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삼계(三界) 내에는 부동한 층차가 있다. 당신이 어느 한 층 하늘로 수련하고자 하면 당신은 그 한 층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만 수련해 올라갈 수 있으며, 당신이 그 표준에 도달했을 때에만 당신은 승화할 수 있다.”(휴스턴법회 설법)

나의 이해로는 진수자(眞修者)가 법 속에서 경지를 높이고 층차를 높이며 엄격하게 법의 요구에 따라 행하고 자신을 수련하는 것에는 이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억지로, 고의로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좋은 일을 하려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곧 속인 중의 좋은 사람이지만 수련이 아니므로 승화할 수 없고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도달할 수 없다.

2. 사부님의 일깨움

수련 과정에서 겉으로 보기에 세 가지 일을 매우 능동적으로 한 자신을 돌아보았다. 우리집은 법공부 장소이자 자료점이었고 정법 수련에서 줄곧 앞장섰으며, 협조에 기본적으로 빠지는 항목 없이 모두 참가했다. 대법서적, 진상 탁상달력, 스티커, 각종 자료를 만들고, 음성 전화 걸기, 권선문(勸善文) 쓰기, 농촌에 내려가 자료 배포하기 등을 했다. 게다가 매우 진지하게 했고 효과도 아주 좋았다. 수련생 간에도 아주 조화롭게 지냈고 누구든 어려움이 있으면 부르는 대로 달려가고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응했다. 타지 수련생도 자주 우리집에 머물면서 법공부, 교류, 상태 조정을 했다. 수련생들이 모두 인정해주니 이에 따라 나는 환희심, 과시심, 허영심, 자기만족이 생겼고 남의 칭찬을 매우 잘 받아들여 자아가 팽창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며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여겼다. 바쁠 때는 법공부하며 자료를 인쇄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자료를 인쇄하며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렇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 법에 있지 않게 되었다. 한동안 법공부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자주 글자를 틀리게 읽었으며, 정념을 발할 때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생각이 아주 어지러워 스스로도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비록 닦아내야 할 위와 같은 몇 가지 사람 마음을 찾아내긴 했지만 과정 중에서는 여전히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고 어느 마음도 진정하게 닦아내지 못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나를 일깨워주셨다. 하루는 아침에 사부님께 향을 올리고 바닥을 닦았는데, 잠시 후 돌아보니 방금 피운 향이 조금 타다가 꺼져 버렸다. 나는 다시 이어서 피웠는데 잠시 후 보니 또 꺼져 있었다. 나는 좀 긴장해서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다. ‘제자의 수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진지하게 안으로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향 하나를 꺼내 피우니 정상이었다. 그 후 내가 찾은 문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수련으로 여겼다는 것이었다. 당시 그런 상태에서 찾은 것도 맞고 법에도 부합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여전히 뿌리를 찾지 못한 것이었고, 그 뿌리는 바로 명예욕이었다.

나는 또한 수시로 원망심, 질투심, 남을 깎아내리는 마음, 남을 깔보는 마음, 의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등이 나타났다.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할 때 쓰는 마음이 완전히 자비나 선념이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고 수량을 추구하는 것이었지 순수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동시에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늘 약간의 허위 성분이 섞여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남에게 인정받고 남이 나를 믿어줄 것 같았다. 사실 이것은 바로 명예욕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명예욕은 가정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며느리와 지낼 때 겉으로 조화롭게 보이려고 아주 마음을 썼다. 평소에 힘든 일을 다투어 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며 며느리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려 했다. 대법제자인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식이었다. ‘내가 너에게 잘해주면 너도 분명 나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이 고부관계를 잘 유지해야 해.’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잘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후광 속에 명예욕이 숨겨져 있었다는 점이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는 또 한 번 내게 이 마음을 버리게 하셨

다. 한번은 우리가 성도(省都)에 가서 수련생을 구출하려 했는데 며칠 뒤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며느리와 어린 손자가 식사하기 편하게,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서 나는 그 모자가 먹기 편하게 만두를 빚어 얼려두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수고스럽지만 며느리 혼자 아이를 돌보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을 생각해 최대한 모자가 편하도록 했다. 출발 전에 막 다 빚고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잠시 가다가 물건 하나를 잊고 안 가져온 게 생각나서 나는 다시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집 안에서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며 큰소리로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같았고 말할수록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세히 들어보니 아! 이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아주 날 화나서 죽게 만든다니까. 외출할 거면서 아직도 만두를 빚느라 바빠. 어머니가 빚은 그 만두 난 먹기도 싫어! 엄청 맛없어!”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정말 내 욕을 하고 있네?’ 잠시 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다가 침실에서 물건을 찾는 나를 보고는 얼굴빛이 몹시 긴장되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흥봤어요.” 나는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서 말했다. “만두가 그렇게 맛없니? 너를 그렇게 화나게 할 정도로? 화내지 마라, 나 간다!” 그리고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성도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도착하려면 5시간이 필요했다. 내 마음에는 방금 들은 그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그 순간 실망해 낙담하는 마음이 들었다. 비록 그때 며느리와 맞싸우거나 말다툼하지 않고 겉으로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주 쓰라리고 억울했으며 체면이 도저히 서지 않았다. ‘나도 70세인 사람인데 널 편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불경한 말을 내뱉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네.’ 생각을 돌려 다시 생각해보니 틀렸다. 나는 수련인이니 우연한 일은 없고 안으로 찾아야 했다.

수련생과 이 일을 교류하자 수련생은 선의로 법에서 나를 일깨워 주었다. 내가 유위적(有爲)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 한 것이고 진정하게 선심(善心)을 내어 며느리를 위해 잘해준 게 아니며, 그렇게 한 것은 ‘며느리’가 나더러 ‘좋다’고 말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했다. 법에 있지 않아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했기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자연스러움에 따라야 하며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며느리는 내가 만두 빚어주는 것을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만두소만 버무려 놓으면 자기가 빚겠다고 했었다. 그런데도 나는 굳이 다 빚어주려 했고 결과적으로 바빠서 나는 밥도 못 먹고 떠났다. 확실히 유위적으로 한 것이었다. 깊은 층으로 찾아 들어가 보니 여전히 명예욕이 지탱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줄곧 은연중에 이 명예욕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3. 근본 집착을 닦아내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수련한 지 20여 년 만에야 자신의 근본 집착을 찾았다! 법도 적지 않게 배웠고 일도 적지 않게 했지만 진정하게 법을 얻어 법에 동화되지는 못했고, 다수는 표면적인 것이었고 사람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강도를 높여 많이 법 공부하고 법을 외우고 법을 베껴 써야 한다. 많이 법공부하는 것은 법에 동화되기 위함이다. 우선 법에 동화되어야 관념을 바꿀 수 있고 바로 후천적으로 형성된 ‘진선인’ 우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바꿔 구세력의 안배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반드시 마음속에 공을 들여 일일이 법으로 가늠해야 하며, 대법에 부합하면 하고 대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단호히 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의 작고 사소한 일과 일사일념(一思一念)의 언행 속에서

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두 법에 대조해 자신 몸의 바르지 못한 요소를 닦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동안 지난 후 나는 그 명예욕으로부터 파생된 다른 집착심들을 제거하기도 쉬워졌음을 발견했다. 나는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전법륜)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조금 닦아내면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서는 다른 공간에서 나를 위해 조금 없애주신다. 사부님의 자비롭고 고생스러운 제도(慈悲苦度)에 감사드린다!

나와 남편은 동시에 대법을 얻어 수련했고 남편은 줄곧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했는데, 2003년에 중공 악당에게 5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3년 후 박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가정을 이룬 후 타지에 있었다. 어린 손자가 태어났을 때 내가 3년 반 동안 돌봐주었고 이후에는 내가 돌볼 필요가 없게 되어 나의 수련 환경은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나의 환경에 변화가 생겼는데, 아들이 나를 동북에서 그들 현지로 모시고 와 근처에 집을 임대해주면서 내 나이가 많으니 돌봐주기 편하게 하겠다고 했다. 사실 나는 어떠한 돌봄도 전혀 필요 없지만 전통에 부합하는 것을 고려해 이곳으로 오는 것에 동의했다. 나는 대법제자의 수련은 모두 사부님께서 순서 있게 안배하신 것이라 여겨 자연스러움에 따르기로 했고 어떤 환경에서든 모두 수련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환경에 오니 나는 또 혼자 수련하게 되었고 고향 같은 환경은 없었지만, 나는 명혜망에 접속할 수 있었기에 전체 형세와 정법 노정을 발맞춰 바짝 따라갔으며 세 가지 일을 하기가 고향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편했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곳은 장터가 많고 시장, 도매시장, 대형 마트가 많아 인연이 있어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많아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

은 심성을 높일 기회가 많다는 점이다. 제자에게 또 새로운 수련 환경과 제고할 기회를 안배해주신 사존께 감사드린다.

나는 학교를 몇 년 다니지 못해 글쓰기가 매우 벅차다. 개인적인 체험이니 법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지적 해주시길 바란다.

늑대가 양을 먹으려 할 때는 항상 핑계를 댈다.

글/ 루화

[명혜지창]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풀 수 없는 의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끌겠다고 선언한 그 체제가 항상 교과서와 홍보에 우리에게 과거의 인류 역사는 ‘악랄한 구세계’이며, 반드시 깨뜨려야만 하는지를 주입했을까요? 하늘을 존경하고 신을 믿으며 선량하고 검소하게 양보한 우리 조상들이 도대체 그것과 무슨 깊은 원한이 있습니까?

제가 반평생을 보내고, 신앙의 뒷받침과 사실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이 ‘선악이 뒤바뀐’ 황당함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차례 조상의 재산 분쟁.

해외에 있는 화교 친구들은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 본토에서는 부동산 쟁탈로 인해 형제가 반목하고 가정이 파탄하는 비극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멸한다”는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생존 법칙이 되었습니다.

1996년에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고,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의 기준에 따라 제 사상과 도덕 경지를 향상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곧 시련이 닥쳤습니다.

1998년 설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시동생 가족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살고 있었고, 집에 있던 몇몇 소중한 물건들

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억울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법륜’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수련인은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름을 말하는데, 당신의 것이라면 잃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다뤄서도 얻지 못한다.” 갑자기 마음이 놓였습니다. 싸움을 숭상하는 중국 사회에서, 저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물러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집 열쇠를 가족에게 맡겨 시동생에게 물려주고 가족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룬궁은 나에게 한 사람의 생명이 ‘자기를 위하는 것’에서 ‘타인을 위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일개 지구 경찰의 무력함

그러나 이러한 순수하게 도덕적 승화를 추구하는 집단은 1999년 7월 20일, 중국이 온 힘을 다해 추진한 잔혹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해 탄압이 시작될 때, 중국공산당은 공식 웹사이트에 조작된 리홍쯔 사부님의 경문을 게시했습니다. 제가 경문 원문을 들고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삭제되거나 삭제된 내용과 한 글자씩 비교했을 때, 제 주변에서 지켜보던 경찰들은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매일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듣고, 매일 실제 사람과 진실을 마주합니다. 양심만 있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압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종종 진실을 정치적 올바름에 양보하게 됩니다. 당시 스무 살 남짓한 풋풋한 얼굴의 작은 경찰관이 선량함 때문에 제 피해를 못 봐주겠다고 몰래 권유했습니다. 이곳에는 이유가 없으니, 사나이는 눈앞의 손해를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나를 슬프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중국인의 축소판입니다. 그들은 양심과 선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공산당의 위선과 부패에 익숙해졌지만, 두려움 속에서 굴복과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2년, 제가 ‘진선인’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 불법 체포되었을 때, 전신 전기 충격과 곤봉으로 밤을 새워 구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해자들은 단지 “위에서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내 이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압 전기의 불꽃이 내 피부에서 튀었을 때, 나는 매일 TV에서 자신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바르다”고 선전하는 그 중국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하고 흉악한지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간 민족의 중추

우리 세대의 해외 화교들은 많은 조상이나 부모 세대가 ‘반우’, ‘문화대혁명’ 등 역대 정치 운동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른이 된 후, 저는 ‘9평공산당’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이 백 년의 역사적 맥락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체제는 처음부터 반우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신론으로 수천 년 동안 중국인의 하늘과 땅에 대한 경외심을 끊고, 옹황 자손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 기반인 도덕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사회가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고 믿지 않을 때, ‘진선인’은 정부의 눈에 악의 근원이 되고, 의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장기를 적출할 수 있으며, 당이 정책을 내세워 4억 명의 태아를 무고하게 희생시킬 수 있을 때, 이 사회의 도덕은 이미 전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다. 오늘날 중국 본토가 직면한 다양한 자연재해와 인재, 독극물의 범람, 사람 간의 신뢰 없는 상호 해악과 투쟁 방식은 도덕이 타락한 후의 필연적인 악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을 아는 것이 미래를 향한 시작입니다.

늑대는 양을 먹으려 할 때 온갖 핑계를 대며 ‘양은 악하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잔혹한 악당이고, 누가 무고한 양이며, 백년의 역사를 가진 해외 화교 중 누가 마음속으로 여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압박을 받으며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진실을 전파하고, 박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심지어 ‘파룬궁 보호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도덕적 한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모든 화교 동포들에게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흑백을 뒤바꾸고 거짓말과 폭력을 동반한 입신의 진면목을 인식하고, 그것과 선을 긋고, 우리 중화민족이 하늘을 존경하고 신을 믿고 덕을 중시하며 선을 행하는 전통을 되찾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의 보호와 자신과 후손을 위한 밝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7월 3일, 미국의 탄생지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온이 38도에 달해 원래 예정됐던 기념 퍼레이드는 취소됐지만, 미국 각지에서 온 공연 단체와 수많은 시민이 필라델피아 독립 광장 일대에 모여 공연을 펼쳤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수련자가 제작한 꽃차와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천국악단 및 요고(腰鼓)팀의 멋진 공연은 시민들에게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아름다운 이념을 전달해 현장 관객들의 환영을 받았고 현지 여러 주류 언론에도 보도됐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9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399만 0593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